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 고*

곽현숙**

【목 차】

1. 서론
2. 고유한자의 개념
3. 한국 고유한자의 형성 원인
4.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수량 분석
5.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특징

【초록】

『漢鮮文新玉篇』은 고종의 칙령으로 새로운 문자 생활이 시작되면서 시대 상황에 맞는 자전 편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시기에 玄公廉이 편찬한 자전이다. 『漢鮮文新玉篇』의 한문 주석에 ‘【朝】’, ‘【日】’, ‘【華】’ 등의 표시가 있는 자형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시된 ‘【朝】’, ‘【日】’, ‘【華】’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朝】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 【日】은 일본에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 【華】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朝】를 중심으로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漢鮮文新玉篇』에는 55자, 극히 소수의 한국 고유한자가 출현하였지만 『漢鮮文新玉篇』을 포함한 여타 다른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우리 고유한자에는 우리의 생활방식이나 국가의 제도문화, 사유방식 등 상당히 풍부한 문화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의 고유한자가 현 국어생활에서는 사용빈도가 낮아서 홀시되고 점차 사라져가는 경향이고 이미 소실된 것도 상당수다. 그러나 우리 고유한자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한자 사용의 역사적 과정을 밝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고유의 문화적 정서를 찾는 하나의 실마리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유한자의 발굴은 물론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학문적 구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키워드】 『漢鮮文新玉篇』, 한국고유한자, 국자, 국음자, 국의자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4-KFR-1230003). 그리고 2016년 한국중어중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정·증보하여 투고한 논문임.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전임연구원 (yellow1331@hanmail.net)

1. 서론

『漢鮮文新玉篇』은 고종의 칙령으로 새로운 문자 생활이 시작되면서 시대 상황에 맞는 사전 편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시기에 玄公廉이 편찬한 사전이다. 1913년 편찬된 『漢鮮文新玉篇』은 앞선 근대 시기에 편찬된 『國漢文新玉篇』(1908), 『字典釋要』(1909)등의 사전들보다 수록된 한자의 수량이 많았는데, 총 16,739개의 표제자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각 표제자에 대한 모든 의미항은 우리말 풀이를 담고 있고 16,739개 한자의 音·訓에 대한 체계를 규범화 하려 했다. 이는 『漢鮮文新玉篇』序를 살펴보면 당시 한 종류의 옥편만 유행하고 있었고, 그 옥편은 『全韻玉篇』으로 우리말로 해석되어 있지 않아 현재의 사람들이 그 정확한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¹⁾ 물론 『漢鮮文新玉篇』이 편찬되기 이전에 『全韻玉篇』외에 『國漢文新玉篇』, 『字典釋要』등 다른 사전들이 존재하였지만 그 사전들 역시 우리말 풀이가 일부 한정되어 있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이에 편찬된 『漢鮮文新玉篇』은 표제자에 대한 모든 의미정보를 우리말로 풀이하여 부녀, 촌부부터 문인학사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자를 익히는데 이 사전이 널리 사용되기를 바랬던 현공림의 저술 목적에서 잘 알 수 있다.²⁾

『漢鮮文新玉篇』의 체제를 살펴보면 『全韻玉篇』과 동일하고 표제자 배열 양상은 『康熙字典』을 저본으로 삼아 부수 순에 따라 1획의 一字部에서 17획 龠字部까지 획수의 다소에 의거하여 배열하였다. 그리고 『漢鮮文新玉篇』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이체자 자형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이체자는 대체적으로 『全韻玉篇』과 유사하지만 일부 이체자는 『漢鮮文新玉篇』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있다. 또 『漢鮮文新玉篇』의 한문 주석에 ‘【朝】’, ‘【日】’, ‘【華】’등의 표시가 있는 자형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시된 ‘【朝】’, ‘【日】’, ‘【華】’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朝】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 【日】은 일본에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 【華】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를 말한다. 이는 『漢鮮文新玉篇』의 한문 주석 안에 표제자에 대한 단순한 의미 풀이를 넘어 한국, 중국, 일본 등 각 나라에서만 사용되는 한자와 한자어까지 구분하여 풀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漢鮮文新玉篇』의 표제자 배열, 표제자의 종류, 석문에서 나타나는 이체자 유형, 석문의 풀이 등을 살펴보면 『漢鮮文新玉篇』이 『全韻玉篇』보다 100년 정도 후에 나온 사전임에도 불구하고 표제자나 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同字, 通字, 俗字, 古字 등의 이체자가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國漢文新玉篇』과 『字典釋要』에는 수록되지 않은 한자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漢鮮文新玉篇』은 다른 사전에 비해 옛 古字만 많이 수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필요한 한자나 신자 등도 증보하여 편찬하였다. 이는 『漢鮮文新玉篇』의 序에서 “근래 각 학문계의 새로 발명된 글자를 널리 채록

1) “近世以來로 玉篇之行于世者- 惟有一種이오 又其語義를 不以鮮文解釋이라 故로 覽者- 多有不得其要領호니 究其原委컨디 風氣所使에 似應其然이로다 然이나 若以今揆古호면 不能無憾焉者- 存焉.” (『漢鮮文新玉篇』 序)

2) “乃將舊日玉篇호야以鮮文解譯之호며且其脫漏處及緊要字는對照余互於康熙字典而添入之호고”

하여 증보하였으며, 또 앞에 나온 글자의 뜻으로써 조목조목 번역·주해하고, 그 주석이 길어진 곳은 그 구절 아래에 괄호를 더하여 분별하기 편하도록 하였으니”³⁾ 라는 구절에서 잘 알 수 있다. 이것이 『漢鮮文新玉篇』이 근대 계몽기에 편찬된 자전 중 표제자의 수량이 많은 이유이면서, 그 어떤 자전보다 古字나 俗字, 同字, 通字 등이 다양하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전인 사실을 알려준다. 이렇게 가치 있는 자전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國漢文新玉篇』이나 『字典釋要』, 『新字典』 등 다른 자전들에 비해 『漢鮮文新玉篇』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대 시기에 편찬된 자전의 서문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자에 대한 정확한 음·훈과 체계가 없던 경우를 한탄하며 혼란을 정리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漢鮮文新玉篇』은 그 자체의 연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전이다. 특히, 『漢鮮文新玉篇』은 근대 시기에 편찬된 자전류 중 표제자 수량이 많은 편이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新字, 일본과 중국에서 통용되는 한자 및 한자어까지 섭렵하여 시대에 맞는 자전을 편찬하려 했던 자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朝〕를 중심으로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고유한자의 개념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한국 고유한자가 사용되고 있지만 고유한자를 맨 처음 주석에 수록한 것은 1909년 池錫永이 편찬한 『字典釋要』이다. 『字典釋要』에는 『漢鮮文新玉篇』과 달리 한국 고유한자를 【鮮】으로 표기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그 수량은 총 61자이다.⁴⁾ 그리고 이후 1915년에 편찬한 육당의 『新字典』에서는 총 106자의 한국 고유한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新字典』에서는 또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과는 달리 ‘朝鮮俗字’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⁵⁾ 이렇듯 『字典釋要』나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말하는 한국 고유한자의 표기를 살펴보면 모두 ‘鮮’ 혹은 ‘朝’ 또는 ‘朝鮮’이라는 명칭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鮮’과 ‘朝’ 그리고 ‘朝鮮’의 의미는 시기를 구분하는 조선시대의 의미가 아니라 국명으로 우리나라 즉,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新字典』에서 말하는 ‘朝鮮俗字’의 ‘俗字’ 역시 이체자에 사용하는 ‘俗字’와의 개념과 혼동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다르다. 『新字典』에서 말하는 ‘朝鮮俗字’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조자와 기존의 한자 음·의에 새로운 음·의를 부여하여 사용한

3) 又博採近來各科學問界之新發明字^호아增補之^호며 又將以上字義^호아節節而譯解之^호고 且其註釋衍長處則其句節下^아에加以圈標^호아 以便分別^호니

4) 『字典釋要』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는 다음과 같다. ‘上, 串, 俦, 刺, 卜, 矚, 堡, 太, 套, 甥, 甥, 宕, 帖, 帖, 帽, 忒, 恸, 把, 木, 柁, 棍, 楹, 櫟, 櫟, 武, 斃, 汎, 牌, 牒, 獫, 沓, 畧, 硃, 秤, 租, 稂, 箕, 模, 級, 結, 綰, 胖, 腎, 藿, 枹, 櫛, 貼, 輻, 辻, 込, 辻, 郷, 銃, 錫, 鎗, 鑪, 面, 頃, 鬢, 魴, 鰲’으로 총 61자이다.

5) 『新字典』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는 다음과 같다. 刀, 卜, 丂, 亅, 干, 夕, 太, 木, 印, 召, 禾, 𥝌, 𥝍, 𥝎, 𥝏, 串, 把, 𣎵, 𣎶, 帖, 𣏟, 𣞐, 𣞑, 𣞒, 𣞓, 𣞔, 𣞕, 𣞖, 𣞗, 𣞘, 𣞙, 𣞚, 𣞛, 𣞜, 𣞝, 𣞞, 𣞟, 𣞠, 𣞡, 𣞢, 𣞣, 𣞤, 𣞥, 𣞦, 𣞧, 𣞨, 𣞩, 𣞪, 𣞫, 𣞬, 𣞭, 𣞮, 𣞯, 𣞰, 𣞱, 𣞲, 𣞳, 𣞴, 𣞵, 𣞶, 𣞷, 𣞸, 𣞹, 𣞺, 𣞻, 𣞼, 𣞽, 𣞾, 𣞿, 𣟀, 𣟁, 𣟂, 𣟃, 𣟄, 𣟅, 𣟆, 𣟇, 𣟈, 𣟉, 𣟊, 𣟋, 𣟌, 𣟍, 𣟎, 𣟏, 𣟐, 𣟑, 𣟒, 𣟓, 𣟔, 𣟕, 𣟖, 𣟗, 𣟘, 𣟙, 𣟚, 𣟛, 𣟜, 𣟝, 𣟞, 𣟟, 𣟠, 𣟡, 𣟢, 𣟣, 𣟤, 𣟥, 𣟦, 𣟧, 𣟨, 𣟩, 𣟪, 𣟫, 𣟬, 𣟭, 𣟮, 𣟯, 𣟰, 𣟱, 𣟲, 𣟳, 𣟴, 𣟵, 𣟶, 𣟷, 𣟸, 𣟹, 𣟺, 𣟻, 𣟼, 𣟽, 𣟾, 𣟿, 𣠀, 𣠁, 𣠂, 𣠃, 𣠄, 𣠅, 𣠆, 𣠇, 𣠈, 𣠉, 𣠊, 𣠋, 𣠌, 𣠍, 𣠎, 𣠏, 𣠐, 𣠑, 𣠒, 𣠓, 𣠔, 𣠕, 𣠖, 𣠗, 𣠘, 𣠙, 𣠚, 𣠛, 𣠜, 𣠝, 𣠞, 𣠟, 𣠠, 𣠡, 𣠢, 𣠣, 𣠤, 𣠥, 𣠦, 𣠧, 𣠨, 𣠩, 𣠪, 𣠫, 𣠬, 𣠭, 𣠮, 𣠯, 𣠰, 𣠱, 𣠲, 𣠳, 𣠴, 𣠵, 𣠶, 𣠷, 𣠸, 𣠹, 𣠺, 𣠻, 𣠼, 𣠽, 𣠾, 𣠿, 𣡀, 𣡁, 𣡂, 𣡃, 𣡄, 𣡅, 𣡆, 𣡇, 𣡈, 𣡉, 𣡊, 𣡋, 𣡌, 𣡍, 𣡎, 𣡏, 𣡐, 𣡑, 𣡒, 𣡓, 𣡔, 𣡕, 𣡖, 𣡗, 𣡘, 𣡙, 𣡚, 𣡛, 𣡜, 𣡝, 𣡞, 𣡟, 𣡠, 𣡡, 𣡢, 𣡣, 𣡤, 𣡥, 𣡦, 𣡧, 𣡨, 𣡩, 𣡪, 𣡫, 𣡬, 𣡭, 𣡮, 𣡯, 𣡰, 𣡱, 𣡲, 𣡳, 𣡴, 𣡵, 𣡶, 𣡷, 𣡸, 𣡹, 𣡺, 𣡻, 𣡼, 𣡽, 𣡾, 𣡿, 𣢀, 𣢁, 𣢂, 𣢃, 𣢄, 𣢅, 𣢆, 𣢇, 𣢈, 𣢉, 𣢊, 𣢋, 𣢌, 𣢍, 𣢎, 𣢏, 𣢐, 𣢑, 𣢒, 𣢓, 𣢔, 𣢕, 𣢖, 𣢗, 𣢘, 𣢙, 𣢚, 𣢛, 𣢜, 𣢝, 𣢞, 𣢟, 𣢠, 𣢡, 𣢢, 𣢣, 𣢤, 𣢥, 𣢦, 𣢧, 𣢨, 𣢩, 𣢪, 𣢫, 𣢬, 𣢭, 𣢮, 𣢯, 𣢰, 𣢱, 𣢲, 𣢳, 𣢴, 𣢵, 𣢶, 𣢷, 𣢸, 𣢹, 𣢺, 𣢻, 𣢼, 𣢽, 𣢾, 𣢿, 𣣀, 𣣁, 𣣂, 𣣃, 𣣄, 𣣅, 𣣆, 𣣇, 𣣈, 𣣉, 𣣊, 𣣋, 𣣌, 𣣍, 𣣎, 𣣏, 𣣐, 𣣑, 𣣒, 𣣓, 𣣔, 𣣕, 𣣖, 𣣗, 𣣘, 𣣙, 𣣚, 𣣛, 𣣜, 𣣝, 𣣞, 𣣟, 𣣠, 𣣡, 𣣢, 𣣣, 𣣤, 𣣥, 𣣦, 𣣧, 𣣨, 𣣩, 𣣪, 𣣫, 𣣬, 𣣭, 𣣮, 𣣯, 𣣰, 𣣱, 𣣲, 𣣳, 𣣴, 𣣵, 𣣶, 𣣷, 𣣸, 𣣹, 𣣺, 𣣻, 𣣼, 𣣽, 𣣾, 𣣿, 𣤀, 𣤁, 𣤂, 𣤃, 𣤄, 𣤅, 𣤆, 𣤇, 𣤈, 𣤉, 𣤊, 𣤋, 𣤌, 𣤍, 𣤎, 𣤏, 𣤐, 𣤑, 𣤒, 𣤓, 𣤔, 𣤕, 𣤖, 𣤗, 𣤘, 𣤙, 𣤚, 𣤛, 𣤜, 𣤝, 𣤞, 𣤟, 𣤠, 𣤡, 𣤢, 𣤣, 𣤤, 𣤥, 𣤦, 𣤧, 𣤨, 𣤩, 𣤪, 𣤫, 𣤬, 𣤭, 𣤮, 𣤯, 𣤰, 𣤱, 𣤲, 𣤳, 𣤴, 𣤵, 𣤶, 𣤷, 𣤸, 𣤹, 𣤺, 𣤻, 𣤼, 𣤽, 𣤾, 𣤿, 𣥀, 𣥁, 𣥂, 𣥃, 𣥄, 𣥅, 𣥆, 𣥇, 𣥈, 𣥉, 𣥊, 𣥋, 𣥌, 𣥍, 𣥎, 𣥏, 𣥐, 𣥑, 𣥒, 𣥓, 𣥔, 𣥕, 𣥖, 𣥗, 𣥘, 𣥙, 𣥚, 𣥛, 𣥜, 𣥝, 𣥞, 𣥟, 𣥠, 𣥡, 𣥢, 𣥣, 𣥤, 𣥥, 𣥦, 𣥧, 𣥨, 𣥩, 𣥪, 𣥫, 𣥬, 𣥭, 𣥮, 𣥯, 𣥰, 𣥱, 𣥲, 𣥳, 𣥴, 𣥵, 𣥶, 𣥷, 𣥸, 𣥹, 𣥺, 𣥻, 𣥼, 𣥽, 𣥾, 𣥿, 𣦀, 𣦁, 𣦂, 𣦃, 𣦄, 𣦅, 𣦆, 𣦇, 𣦈, 𣦉, 𣦊, 𣦋, 𣦌, 𣦍, 𣦎, 𣦏, 𣦐, 𣦑, 𣦒, 𣦓, 𣦔, 𣦕, 𣦖, 𣦗, 𣦘, 𣦙, 𣦚, 𣦛, 𣦜, 𣦝, 𣦞, 𣦟, 𣦠, 𣦡, 𣦢, 𣦣, 𣦤, 𣦥, 𣦦, 𣦧, 𣦨, 𣦩, 𣦪, 𣦫, 𣦬, 𣦭, 𣦮, 𣦯, 𣦰, 𣦱, 𣦲, 𣦳, 𣦴, 𣦵, 𣦶, 𣦷, 𣦸, 𣦹, 𣦺, 𣦻, 𣦼, 𣦽, 𣦾, 𣦿, 𣧀, 𣧁, 𣧂, 𣧃, 𣧄, 𣧅, 𣧆, 𣧇, 𣧈, 𣧉, 𣧊, 𣧋, 𣧌, 𣧍, 𣧎, 𣧏, 𣧐, 𣧑, 𣧒, 𣧓, 𣧔, 𣧕, 𣧖, 𣧗, 𣧘, 𣧙, 𣧚, 𣧛, 𣧜, 𣧝, 𣧞, 𣧟, 𣧠, 𣧡, 𣧢, 𣧣, 𣧤, 𣧥, 𣧦, 𣧧, 𣧨, 𣧩, 𣧪, 𣧫, 𣧬, 𣧭, 𣧮, 𣧯, 𣧰, 𣧱, 𣧲, 𣧳, 𣧴, 𣧵, 𣧶, 𣧷, 𣧸, 𣧹, 𣧺, 𣧻, 𣧼, 𣧽, 𣧾, 𣧿, 𣨀, 𣨁, 𣨂, 𣨃, 𣨄, 𣨅, 𣨆, 𣨇, 𣨈, 𣨉, 𣨊, 𣨋, 𣨌, 𣨍, 𣨎, 𣨏, 𣨐, 𣨑, 𣨒, 𣨓, 𣨔, 𣨕, 𣨖, 𣨗, 𣨘, 𣨙, 𣨚, 𣨛, 𣨜, 𣨝, 𣨞, 𣨟, 𣨠, 𣨡, 𣨢, 𣨣, 𣨤, 𣨥, 𣨦, 𣨧, 𣨨, 𣨩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하영삼 교수가 발표한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 (중국어문학 제33집, 1999)의 논문에서 ‘조선속자’는 오직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조선속자’가 아니라 ‘고유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였다. 필자 역시 각 사전 속에서 나타나는 ‘鮮’, ‘朝’, ‘朝鮮’, ‘朝鮮俗字’ 등 고유한자에 대한 다양한 명칭 중 ‘고유한자’의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각 사전에 사용되는 명칭들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명칭의 개념이 혼동되기가 쉽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유어를 나타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한자 및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도 비록 『漢鮮文新玉篇』에서는 ‘【朝】’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를 ‘고유한자’라고 지칭하였고 본고의 제목에서도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 고’라고 명명하였다.

‘한국 고유한자’란 한자가 한국에 유입된 이후 한국고유의 문화적 정서를 담기 위해 창조되거나 변용된 한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한국 고유한자’란 『漢鮮文新玉篇』의 한문 주석에 【朝】라고 표기된 것으로, 한자 차용표기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오직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한자로서 고유한 우리의 인명, 지명, 관직명, 고유한자어의 표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국 고유한자는 다시 국자(國字), 국음자(國音字), 국의자(國義字)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국자’란 중국이나 일본 등 기타 한자 사용 국가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 고유의 음과 뜻을 가진 채 오직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倭, 嚙, 櫟, 楹, 轍’등을 말한다. 그리고 ‘국음자’란 한자 사용권의 기타 국가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는 특수한 의향을 가진 한자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향을 지칭할 때 독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上, 串, 卜, 刺, 嫗’등의 한자이다. 마지막으로 ‘국의자’란 앞의 국음자와 기본 의미는 비슷하다. 즉, 한자 사용권의 기타 국가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는 특수한 의향을 가진 한자를 말한다. 그러나 국의자는 그 중에서도 독음의 변화가 없이 고유 의미향만을 가지는 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太, 套, 甥, 宕, 帖’등의 한자인데 본고의 연구 대상인 『漢鮮文新玉篇』에서는 ‘국의자’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한국 고유한자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한자 사용의 역사적 과정을 밝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고유의 문화적 정서를 찾는 어떤 실마리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 고유한자의 형성 원인

한자 및 한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때가 언제인지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반도에 한사군이 설치된 이래에는 거의 정확하게 한자와 한문이 우리나라에서 쓰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문자가 없어 민족의 역사를 기록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에게 한자와 한문의 전래는 우리 민족의 문자의 문화 시대를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문자의 표기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렇듯 한자를 이용

하여 우리 문자 특히 우리 언어문화에 알맞은 문자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일궈진 고유한자이다.⁶⁾

한국 고유한자는 통일신라 이후 본격화된 한자와 한문의 사용이 고려, 조선의 수 백 년을 거치는 동안 오직 우리 언어생활에만 필요한 한자 및 한자어를 생성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고유한자어의 경우에는 상제, 제례, 혼례 등을 비롯하여 복식, 식품, 의락 등의 문화 어휘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한국 고유한자를 처음 사용한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한자와 한문이 전래된 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된 후일 것이다. 이는 한자와 한문이 전래됨과 동시에 일반 대중까지 보급될 수 없는 이유이다. 한자와 한문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을 때 한국의 고유 문자가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한국말과 통사구조와 어법구조가 다르고 또한 음운 체계가 다른 한자와 한문을 소화하여 한국말로 표기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여 한국말을 적당히 표기하려는 노력으로 창출한 것이 한자의 음훈을 이용한 차용표기가 이루어져왔다. 그리하여 이러한 음훈차용표기 과정에서 한국 고유한자 및 고유어휘가 형성되었다.⁷⁾ 이러한 한국 고유한자는 물론 중국의 제자원리인 육서에 의하여 형성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고유한자는 한자의 음훈차용표기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고유한자를 살펴보면 조자보다도 국의자가 절대 다수임에서 잘 알 수 있고 본고의 연구대상 자료인 『漢鮮文新玉篇』에서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역시 국의자가 가장 많음에서 잘 알 수 있다.

어쨌든 우리의 고유한자가 삼국시대의 인명, 지명, 관직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훈민정음 이전의 한자 차용표기 시대에 있어서 고유명사 표기를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또는 주체적 표기 수단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고유한자의 표기는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고유한자와 고유어휘가 한국에서 지명이나 성명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것이 있기는 하나 사용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현 생활에 사용되는 언어와 문자의 학습에 있어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고,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무시될 수도 있으나, 문화사적인 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4.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수량 분석

1) 고유한자의 여부 분석

『漢鮮文新玉篇』의 표제자 수량은 총 16,739자이다. 이 중 한국 고유한자의 수량은 모두 58자로, 상권에 30자, 하권에 28자로 각 각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가 정말 우리의 고유한자인지에 대한 여부 판단과 우리나라 고문헌에

6)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보고사, 2014.

7)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서 실질적으로 그 한자의 쓰임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박재연의 ① 『中朝大辭典』⁸⁾과 ② 『古語大辭典』⁹⁾,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편찬한 ③ 『韓國漢字語辭典』¹⁰⁾, 장삼식의 ④ 『大漢韓辭典』¹¹⁾, 김종훈의 ⑤ 『韓國 固有漢字 研究』¹²⁾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개화기 이전에 편찬된 『訓蒙字會』(1527), 『新增類合』(1576), 『全韻玉篇』(1796년 이후), 『字類註釋』(1986) 등의 각 자서에서 그 한자의 사용 여부와 의미를 살펴보았고, 개화기에 편찬된 『漢鮮文新玉篇』과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國漢文新玉篇』(1908), 『字典釋要』(1909), 『字典大解』(1913), 『新字典』(1915)등의 자전을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 고유한자의 여부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한국 고유한자의 생성과 사라짐의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유한자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된 한자와 한자어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의 『康熙字典』과 『漢語大詞典』등을 검토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아래는 한국의 역대 문헌과 자서 및 자전 속에 나타나는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58자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¹³⁾

-
- 8) 이 사전은 15-19세기에 조선에서 발간된 번역소설이나 회화교재, 자서와 운서 등 각종 문헌 230여 종, 1천여 책에서 뽑은 개별 한자 1만2천814자를 표제자로 수록하고 있다. 각 표제자 아래에는 이 글자가 첫 머리에 들어가는 단어(어휘)를 수록했는데, 표제어를 포함한 어휘는 총 6만9천352개에 이른다. 표제어와 어휘마다 용례가 빠짐없이 실려 있다. 모두 42만5천918개의 용례는 해당 표제어와 어휘가 등장하는 원전 텍스트의 관련 대목을 원전대로 표기해 실었다. 이 사전은 이런 방법으로 어휘에 대한 역사적 정보뿐 아니라 한자음의 변화나 음운변화 현상까지 살펴보게 했다.
- 9) 전 7권에 수록한 표제어는 7만여 개이며, 이들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헌에 어떤 맥락으로 사용됐는지를 일일이 밝힌 용례는 18만여 개에 달한다. ‘필사본 고어대사전’은 글자 그대로 필사본 형태로 남은 역대 한글 문헌에 등장하는 한글 고어사전이다. 이 사전 편찬을 위해 동원한 한글 문헌은 15세기 이래 20세기 초반까지 나온 200여 종, 2천여 책 외에도 한글 간찰·한글고문서 1천여 점이 있다. 다시 말해 이 사전은 이들 한글 문헌에서 표제어와 용례를 뽑아 완성한 것이다. 나아가 표제어 선정에도 차별화를 꾀해 기존 사전이 대체로 잔존어와 한자어를 배제한 채 고유어에 치중해 등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한자어와 고(古)제도어, 고유명사, 그리고 차용어까지 망라했다. 이런 경우에는 표제어 항목에 한자어를 병기했다. 이와 함께 용례에서는 한문 원문이나 중국어 원문이 있는 한글 번역 문헌일 경우에는 해당 원문까지 함께 수록했다.
- 10) 1996년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서는 『韓國漢字語辭典』을 편찬하였다. 『韓國漢字語辭典』은 우리 문헌에만 등장하는 고유한자와 한자어를 집대성한 책으로, 고전 해독과 국학 연구의 길잡이가 되는 우리의 한자사전을 만들고자하는 신념으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30여년에 걸쳐 총 4책으로 편찬된 것이다.
- 11) 장삼식 사전은 용어들이 아주 많아서 한자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 12)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지식영의 『字典釋要』에 [鮮]의 표기로 고유한자를 수록하고, 『新字典』에서 [朝鮮俗字]의 표기로 고유한자를 수록한 근대 시기 자전이 출현되던 1909년부터이다. 이때부터 여러 학자들이 우리 고유한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각자의 견해에 따라 부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김종훈은 『한국 고유한자 연구』(1983에서 고유한자에 대한 첫 연구서를 출간하였고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였다. 최근 개정증보판으로 『韓國 固有漢字 研究』(2014)를 출간하였다.
- 13) 자료는 한국한자연구소가 구축한 ‘한중일 고대한자사전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한국 근대시기 한자사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표1>

번호	표제자	권	【朝】	훈몽자회	신증유합	전운옥편	자류주석	국한문신옥편	자전석요	자전대해	신자전	자림보주	중조대사전	대한한사전	한국한자어사전	강희자전	한어대사전
1	上	상	【朝】차하홀【차】。上給下上下。	A ¹⁴⁾	A	A	A	A	ㄱ ⁵⁾	○	A	A	○	A	○	A	A
2	串	상	【朝】일홈【곳】。地名, 竹串島。꽃창이【곳】。貫物竹釘。	x ¹⁶⁾	A	A	A	A	○	○	A	○	○	○	○	A	A
3	俵	상	다짐들【고】。誓必行【朝】。(皓)。	x	x	x	x	x	○	○	○	○	x	x	○	x	x
4	刺	상	【朝】수라【즈】。御供曰水刺。	x	A	A	A	A	x	○	A	A	x	○	○	A	A
5	卜	상	【朝】짐【복】。擔也。	A	A	A	A	A	○	○	A	x	○	○	○	A	A
6	嚙	상	너흐를【람】。啐也。【朝】。	x	x	x	x	x	○	○	x	○	A	x	x	x	x
7	垞	상	집터【디】。近屋地。【朝】。	x	x	x	x	A	○	○	○	○	○	○	○	A	A
8	太	상	【朝】콩【태】。菽也。	x	A	A	A	○	○	○	A	A	○	○	○	A	A
9	套	상	【朝】전례【투】。例也。	x	A	A	A	A	○	○	A	A	○	○	A	A	A
10	甥	상	【朝】오라비【남】。姊妹謂男兄弟曰甥。	x	x	x	x	x	○	○	○	○	x	○	○	A	A
11	媿	상	시집【시】。夫家。【朝】。	x	x	x	x	x	○	○	○	○	○	○	○	A	A
12	宕	상	탕건【탕】。官人懸帽宕巾。【朝】。	x	x	A	A	A	○	○	A	○	x	○	○	A	A
13	帖	상	【朝】체지【체】。徒隸委任狀帖。(紙)。	A	x	A	A	A	○	○	A	A	○	○	○	A	?
14	忤	상	산일홈【기】。山名, 忤怛。【朝】。	x	x	x	x	x	○	x	○	x	A	x	○	x	x
15	恻	상	겁닐【겁】。怯俗字。【朝】。	x	x	○	○	○	○	○	○	x	○	A	○	x	x
16	把	상	【朝】발把【파】。庾也。	A	A	A	A	A	○	○	A	A	○	○	○	A	A
17	木	상	【朝】무명【목】。棉織。	A	A	A	A	A	○	○	A	A	○	○	○	A	A
18	栖	상	눛【스】。栖枝。【朝】。(寘)。	x	x	○	A	○	x	○	A	A	○	○	○	A	A
19	柵	상	스슬【싱】。籤也。장승【싱】。路表長柵。【朝】。	x	x	x	x	x	○	○	○	○	A	○	○	x	x
20	棍	상	【朝】곤장【곤】。刑具棍杖。	A	x	A	A	○	○	○	○	A	○	○	○	A	A
21	櫟	상	싸일홈【자】。地名, 櫟木城。【朝】。	x	x	x	x	x	○	○	x	x	A	○	○	x	x
22	楹	상	싸일홈【추】。地名, 楹郡。【朝】。	x	x	x	x	x	○	○	○	x	A	○	○	x	x
23	藏	상	장【장】。所以藏衣。【朝】。	x	○	x	x	x	○	○	○	○	A	○	○	x	x
24	武	상	【朝】호반【무】。軍官, 虎班。	A	A	A	A	○	○	○	○	A	○	○	○	A	A
25	氅	상	【朝】창의【창】。官人平常服, 氅衣。	x	A	A	A	○	○	○	A	A	○	○	○	A	A
26	洑	상	【朝】보막을【보】。蓄水溉田。	x	x	A	A	A	○	○	A	A	○	○	○	A	A
27	牌	상	【朝】。비지【비】。下書于賤者曰牌旨。又《廣韻》《正韻》步皆切《集韻》蒲皆切, 音排。	A	x	A	x	A	○	○	A	A	○	○	○	A	x
28	牒	상	【朝】덤지【덱】。判任授官牒紙。	A	A	A	A	A	○	○	○	A	○	x	○	A	A

번호	표제자	권	【朝】	훈몽자회	신증유합	전운옥편	자류주석	국한문신옥편	사전석요	사전대해	신사전	자림보주	중조대사전	대한한사전	한국한자어사전	강희사전	한어대사전
29	檄	상	【朝】돈피【돈】。貂也, 檄皮。	x	x	x	x	x	x	o	x	o	A	x	x	A	A
30	檄	상	【朝】돈피【돈】。貂也, 檄皮。	x	x	x	x	x	o	o	o	o	A	A	o	x	x
31	畚	하	【朝】논【답】。水田。	x	x	x	x	x	o	o	o	o	A	A	A	x	x
32	畚	하	【朝】비미【렬】。畚區。	x	x	x	x	x	o	o	o	o	A	o	o	A	A
33	砵	하	【朝】따일흙【적】。地名, 砵城。	x	x	x	x	x	o	o	o	x	A	o	o	x	x
34	秤	하	【朝】칭【칭】。百斤。	x	A	A	A	A	o	o	A	o	o	x	A	A	A
35	棕	하	【朝】숙궁【숙】。各宮幹事者, 棕宮。	x	x	x	x	x	o	o	o	o	A	x	o	x	A
36	箕	하	【朝】싸일흙【오】。地名, 箕城。	x	x	x	x	x	o	x	o	x	A	x	A	x	x
37	級	하	【朝】두름【급】。編魚二十曰級。	A	A	A	A	o	o	o	o	A	o	o	o	A	A
38	結	하	【朝】목【결】。稅禾百負。	A	x	A	A	A	o	o	A	A	o	o	o	A	A
39	綰	하	선【선】。衣緣曰綰。【朝】。	x	x	x	x	x	o	o	o	o	A	x	o	x	x
40	胔	하	【朝】양【양】。牛胃。	x	x	x	A	x	o	o	x	o	A	x	A	A	A
41	腎	하	【朝】자궤지【신】。陰莖。	A	A	o	A	o	o	o	o	x	o	o	o	A	A
42	袍	하	【朝】도포【포】。平當禮服, 道袍。	A	A	A	o	o	o	o	o	x	o	o	o	A	A
43	褱	하	의디【디】。皇室所御服, 衣褱。【朝】。	x	x	x	x	x	o	o	o	o	A	x	o	x	x
44	貼	하	【朝】성접흙【접】。公文鈐印成貼。접【접】。魚果百脯十。	x	A	A	A	A	o	o	A	A	o	o	o	A	A
45	輶	하	【朝】보교【교】。舁車, 步輶。	x	A	A	A	A	o	o	A	A	o	o	o	A	A
46	迕	하	마두리【두】。穀不滿斛。【朝】。	x	x	x	x	x	o	o	o	o	A	x	o	x	x
47	込	하	자리【거】。物不滿束。【朝】。	x	x	x	x	x	o	o	o	x	A	x	o	A	A
48	迕	하	싸일흙【슈】。地名, 迕城。【朝】。	x	x	x	x	x	o	o	x	x	A	x	o	x	x
49	鄉	하	【朝】시골【향】。外邑。	x	x	A	A	o	o	o	x	x	o	o	o	A	A
50	銃	하	【朝】총【총】。兵器。	x	A	x	A	x	o	o	x	o	o	x	o	A	A
51	錫	하	【朝】변탕【탕】。治木器, 邊錫。	x	A	A	o	o	o	o	o	x	o	x	o	o	A
52	鑪	하	복주【선】。量酒油等器。【朝】。	x	x	x	x	x	o	o	o	x	o	x	o	x	x
53	罐	하	【朝】차관【관】。茶罐。	x	x	x	x	x	o	o	x	x	A	x	x	A	A
54	閭	하	서실흙【서】。偶失物, 閭失。【朝】。	x	x	x	x	o	o	o	o	o	A	x	o	x	x
55	面	하	【朝】면【면】。邑里之名。	A	x	A	x	A	o	o	A	A	o	o	o	A	A
56	頃	하	【朝】연고【탈】。故也。	x	x	x	x	A	o	o	o	o	o	o	o	A	A
57	魴	하	【朝】망둥이【망】。魚名。	x	x	x	x	x	o	o	x	o	A	x	o	x	x
58	鳶	하	【朝】성【궐】。姓也。	x	x	x	x	x	o	o	o	x	A	o	o	A	A

14) ‘A’의 표시는 『漢鮮文新玉篇』에서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가 각 사전 및 자전에 수록되어 있지만 한문 주석에서 그 의미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15) ‘o’의 표시는 『漢鮮文新玉篇』에서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가 각 사전 및 자전의 한문 주석에서 그 의미항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가 각 각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역대 문헌과 각 시대에 편찬된 각종 사전 속의 사용여부를 통해 한국 고유한자가 최소한 어떤 시기에 사용되고 있었는지, 시대에 따라 한국 고유한자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변화되어 갔는지 대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고유한자의 생성과 사용은 우리의 언어·문자 생활의 실용화, 문자 사상 또는 국어 사상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 고유한자의 수량 분석

위의 표를 바탕으로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를 국자, 국음자, 국의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자는 22자, 국음자는 10자, 국의자는 23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漢鮮文新玉篇』하권에 수록되어 있는 ‘秤’¹⁷⁾, ‘銃’¹⁸⁾, ‘罐’¹⁹⁾에는 비록 【朝】라고 표기되어 나타나지만 한국 고유한자는 아니기 때문에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1) 국자

국자란 중국이나 일본 등 기타 한자 사용 국가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 고유의 음과 뜻을 가진 채 오직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한자를 말한다. 엄격히 말하자면 설령 다른 지역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음과 뜻이 관련 없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한국 고유한자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국자에 해당하는 한자는 다음과 같다.

<표2>

분류	고유한자	수량	백분율 ²⁰⁾
상	俵, 噯, 垚, 忒, 櫟, 榘, 穢, 穢, 穢, 恸	10	18.1%
하	畚, 硯, 稂, 箕, 綰, 襪, 迕, 迕, 鑄, 閭, 魴, 逌	12	21.8%
총계	俵, 噯, 垚, 忒, 櫟, 榘, 穢, 穢, 穢, 恸, 畚, 硯, 稂, 箕, 綰, 襪, 迕, 迕, 鑄, 閭, 魴, 逌	22	39.9%

- 16) ‘x’의 표시는 『漢鮮文新玉篇』에서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가 각 사전 및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 17) ‘秤’은 ‘稱’의 이체자이다. 이체자를 국의자에 포함시킨 경우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秤’을 한국 고유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 18) ‘銃’은 『字典釋要』에서부터 ‘총’이라 하여 국의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銃’에 대한 고유어는 없고 한자어인 점으로 보아서 ‘총’이란 어휘는 火藥이 개발된 근래부터 사용된 듯하다. 그래서 ‘銃’은 한국 고유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중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 19) ‘罐’은 『字典釋要』에서부터 ‘차관’이라 하여 국의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茶罐’의 ‘罐’과 同字인 점으로 보아 한국 고유한자로 인정할 수 없다. (김중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 20) 표에서 말하는 백분율은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전체 수량에 대한 국자, 국음자, 국의자 각각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말하는 것이다. 지면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시를 하다 보니 백분율의 %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 국음자

국음자란 한자 사용권의 기타 국가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는 특수한 의향을 가진 한자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향을 지칭할 때 독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자를 말한다.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국음자에 해당하는 한자는 다음과 같다.

<표3>

분류	고유한자	수량	백분율
상	上, 串, 套, 刺, 媿, 帖, 洑, 牌	8	14.5%
하	頃, 鳶	2	3.6%
총계	上, 串, 套, 刺, 媿, 帖, 洑, 牌, 頃, 鳶	10	18.1%

(3) 국의자

국의자란 위의 국음자의 기본 의미는 비슷하다. 즉 한자 사용권의 기타 국가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는 특수한 의향을 가진 한자를 말한다. 그러나 국의자가 국음자와 다른 점은 그 중에서도 독음의 변화가 없이 고유 의미항만을 가지는 한자를 말한다.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국의자에 해당하는 한자는 다음과 같다.

<표4>

분류	고유한자	수량	백분율
상	卜, 太, 宕, 把, 木, 枳, 桂, 棍, 武, 氈, 牒, 甥	12	21.8%
하	畱, 紱, 結, 胖, 腎, 袍, 貼, 錫, 面, 輻, 鄉	11	20.0%
총계	卜, 太, 宕, 把, 木, 枳, 桂, 棍, 武, 氈, 牒, 畱, 紱, 結, 胖, 腎, 袍, 貼, 錫, 面, 輻, 鄉	23	41.8%

5.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특징

1) 한국 고유한자 수록 체계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는 한문 주석에 모두 【朝】라는 표기가 있다. 그러나 【朝】라는 표기의 위치가 『漢鮮文新玉篇』의 한문 주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가령 어떤 한국 고유한자는 【朝】라는 표기가 한문 주석 앞에 나타나고, 어떤 것은 한문 주석 맨 끝에 나타나며, 심지어 어떤 것은 한문 주석 중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전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의 표기 규칙을 모르는 사용자들에게 무엇이 한국 고유한자인지, 어느 의미항까지가 한국 고유한자를 설명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알 수도 없다. 그래서 필자는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朝】라는 표기의 위치가 어떤 규칙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인지 살펴보았다.

(1) 표제자와 한문 주석이 일대일 대응 형식²¹⁾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어떤 것은 하나의 표제자에 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의미항이 하나로 일대일 대응의 형식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의 표제자에 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의미항이 두 개 이상으로 일대일 대응의 형식이 있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일대일 대응의 형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국 고유한자 중 국자이다. 예를 들어 ‘拷(다짐돌 고)’는 한문 주석에서 ‘다짐돌 【고】。誓必行。【朝】’로 나타나는데 ‘拷’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朝】는 한문 주석 맨 끝에 표기되어 한국 고유한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櫛(돈피 돈)’은 한문 주석에서 ‘【朝】돈피【돈】。貂也, 櫛皮。’로 나타나는데 ‘櫛’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朝】는 한문 주석 맨 앞에 표기되어 한국 고유한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 한자는 다음과 같다.

<표5>

번호	표제자	원문	비고	분류
1	拷	다짐돌【고】。誓必行。【朝】	상	국자
2	囓	너흐를【람】。啞也。【朝】	상	국자
3	垚	집터【디】。近屋地。【朝】	상	국자
4	忭	산일홈【기】。山名, 忭怛。【朝】	상	국자
5	櫟	싸일홈【자】。地名, 櫟木城。【朝】	상	국자
6	榑	싸일홈【추】。地名, 榑郡。【朝】	상	국자
7	櫛	장【장】。所以藏衣。【朝】	상	국자
8	櫛	【朝】돈피【돈】。貂也, 櫛皮。	상	국자
9	櫛	【朝】돈피【돈】。貂也, 櫛皮。	상	국자
10	忸	겁닐【검】。怯俗字。【朝】	상	국자
11	沓	【朝】논【답】。水田。	하	국자
12	砵	【朝】따일홈【적】。地名, 砵城。	하	국자
13	棕	【朝】숙궁【숙】。各宮幹事者, 棕宮。	하	국자
14	箕	【朝】싸일홈【오】。地名, 箕城。	하	국자
15	綰	션【션】。衣緣曰綰。【朝】	하	국자

21) 본고에서 말하는 일대일 대응 형식이란 표제항에 나타나는 표제자와 풀이항에 나타나는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일대일로 대응되어 나타나는 형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표제자 하나에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漢鮮文新玉篇』의 정보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제항	풀이항			비고
표제자	한글 풀이	자음	한문 주석	출처
櫛	장	장	所以藏衣。	상

번호	표제자	원문	비고	분류
16	褻	의덕【디】。皇室所御服, 衣褻。【朝】	하	국자
17	𪛗	마두리【두】。穀不滿斛。【朝】	하	국자
18	𪛗	자리【거】。物不滿束。【朝】	하	국자
19	迨	싸일홈【슈】。地名, 迨城。【朝】	하	국자
20	鎡	복조【선】。量酒油等器。【朝】	하	국자
21	閻	서실홀【셔】。偶失物, 閻失。【朝】	하	국자
22	魴	【朝】망둥이【망】。魚名。	하	국자
23	媿	시집【시】。夫家。【朝】	상	국음자
24	鵞	鳳古字。【朝】 성【곡】。姓也。	하	국음자

위의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자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가 하나의 표제자에 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의미항이 하나로 일대일 대응 형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자 뿐 아니라 국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대일 대응 형식에 포함되는 것도 있다. 가령 23번과 24번에 해당하는 ‘媿(시집 시)’와 ‘鵞(성 곡)’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극히 소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제자와 한문 주석의 풀이가 일대일 대응 형식일 경우 【朝】의 표기가 한문 주석에서 앞에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에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대일 대응 형식에 속하는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 판단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朝】의 표기가 앞이든 뒤든 의미항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공림 역시 『漢鮮文新玉篇』을 편찬할 때 일대일 대응 형식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의 표기 【朝】의 위치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듯하다.

(2) 표제자와 한문 주석이 일대다 대응 형식22)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국자를 제외한 또 다른 고유한자는 대부분 표제자 하나에 한문 주석의 풀이가 두 개 이상의 의미항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는 한문 주석의 풀이가 비단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풀이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국가에서도 함께 사용되는 의미항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는 다음과 같다.

22) 본고에서 말하는 일대다 대응 형식이란 표제항에 나타나는 표제자와 풀이항에 나타나는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일대다로 대응되어 나타나는 형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표제자 하나에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둘 이상 나타나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항은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의미항만을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표제자에 대한 전체 의미항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표제자는 그 의미항이 둘 이상으로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항과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가 아닌 의미항을 나타내는 경우일 수 있고, 어떤 표제자는 그 의미항이 둘 이상으로 모두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항을 나타내는 경우일 수도 있다.

<표6>

번호	표제자	원문	비고	분류
1	牒	편지【 뎨 】。札也。서판【 뎨 】。書板。족보【 뎨 】。譜牒。공문【 뎨 】。官府移文, 又訟辭。(葉)【 朝 】뎨지【 뎨 】。判任授官牒紙。	상	국외자
2	鄉	일만이천오백호【 향 】。萬二千五百戶。(陽) 嚮向通。【 朝 】시골【 향 】。外邑。	하	국외자
3	上	웃【 상 】。下之對。놈홀【 상 】。尊也。인군【 상 】。君也。(漾) 올닐【 상 】。進也。오를【 상 】。登也。(養)【 朝 】차하홀【 차 】。上給下上下。	상	국음자
4	串	습관【 관 】。狎習。(諫) 慣同。쇠미【 천 】。物相連貫。(霰)【 朝 】일홈【 곳 】。地名, 竹串島。숫창이【 곳 】。貫物竹釘。	상	국음자
5	卜	점【 복 】。龜問。줄ㅅ【 복 】。賜與。(屋)【 朝 】짐【 복 】。擔也。	상	국외자
6	刺	죽일【 조 】。直傷, 剗除。무를【 조 】。訊也。긔롱홀【 조 】。譏切, 諷刺。가시【 조 】。芒也。통조【 조 】。書姓名於奏白。(寘) & 同。씨를【 척 】。刃之, 黥也。비잡을【 척 】。偵伺, 挈舟。스스로히말홀【 척 】。私語, 刺刺。(陌) 諫同。【 朝 】수라【 조 】。御供曰水刺。	상	국음자
7	帖	문서【 뎨 】。券也。타첩홀【 뎨 】。定也, 妥帖。상압혜장【 뎨 】。牀前帷。(葉) 帖同。【 朝 】체지【 체 】。徒隸委任狀帖。(紙)。	상	국음자
8	湫	은혈로흐를【 복 】。伏流。(屋) 洩同。【 朝 】보막을【 보 】。畜水溉田。	상	국음자
9	牌	패【 패 】。榜也。호적패【 패 】。籍也, 篁牌。(佳)【 朝 】. 비지【 비 】。下書于賤者曰牌旨。	상	국음자
10	頃	기를【 이 】。養也。(文)【 朝 】연고【 탈 】。故也。	하	국음자
11	太	클【 태 】。大也。심홀【 태 】。甚也。(泰) 大泰通。【 朝 】콩【 태 】。菽也。	상	국외자
12	套	거듭【 토 】。重沓。장대홀【 토 】。長大。(號)【 朝 】전례【 투 】。例也。	상	국외자
13	甥	말소리【 남 】。語聲。(覃)【 朝 】오라비【 남 】。姊妹謂男兄弟曰甥。	상	국외자
14	宕	방탕홀【 탕 】。放也, 佚宕。골집【 탕 】。洞室。석슈【 탕 】。石工, 宕戶。(漾) 蕩通。탕건【 탕 】。官人懸帽, 宕巾。【 朝 】。	상	국외자
15	把	잡을【 파 】。握也。(馬) 爬通。【 朝 】발把【 파 】。庋也。	상	국외자
16	木	나무【 목 】。東方位, 五行之一, 八音之一, 巽爲木。질박홀【 목 】。質樸, 木訥。강홀【 목 】。不柔, 木強。(屋)【 朝 】무명【 목 】。棉織。	상	국외자
17	枳	숫가락【 스 】。匕也, 喪用, 角枳。늣【 스 】。枳枝。【 朝 】。(寘)。	상	국외자
18	柱	스슬【 싱 】。籤也。장승【 싱 】。路表長柱。【 朝 】	상	국외자
19	棍	나무뭇글【 혼 】。束木。(阮)【 곤 】。棍棒。【 朝 】곤장【 곤 】。刑具, 棍杖。	상	국외자
20	武	위엄스러울【 무 】。威也。날닐【 무 】。勇也, 斷也。굳셀【 무 】。剛	상	국외자

번호	표제자	원문	비고	분류
		也。자취【무】。跡也。풍류일흥【무】。樂名。又冠卷。이을【무】。繼也，接武。북방【무】。北方，玄武。(虞)。【朝】호반【무】。軍官，虎班。		
21	髦	학창의【창】。析羽爲衣，鶴髦。(養)。驚同。【朝】창의【창】。官人平常服，髦衣。	상	국외자
22	陷	싸질【렐】。陷也。(曷)。【朝】비미【렐】。畚區。	하	국외자
23	級	실갈피【급】。絲次第。등급【급】。等級，階級。(緝)。【朝】두름【급】。編魚二十曰級。	하	국외자
24	結	미줄【결】。締也。(屑)。紆通。【朝】목【결】。稅禾百負。	하	국외자
25	胔	수양【양】。羝也。(陽)。【朝】양【양】。牛胃。	하	국외자
26	腎	콩팥【신】。水臟。불알【신】。藏精，作强之官。(軫)。【朝】자-지【신】。陰莖。	하	국외자
27	袍	두루마기【포】。長襦。조복【포】。朝服。(豪)。【朝】도포【포】。平常禮服，道袍。	하	국외자
28	貼	붓틀【덥】。依附。붓칠【덥】。粘置。면당홀【덥】。以物爲質。(葉)。【朝】성접홀【접】。公文鈐印成貼。접【접】。魚果百脯十。	하	국외자
29	錫	환【탕】。磨平木器，鑄錫。(漾)。銛同。【朝】변탕【탕】。治木器，邊錫。	하	국외자
30	面	낯【면】。顏也。향홀【면】。向也。앞【면】。前也。뵈일【면】。見也。방면【면】。當四方之一面曰方面。(霰)。【朝】면【면】。邑里之名。	하	국외자
31	輜	디로만든차밭탕【교】。竹輿。(蕭)。람여【교】。小車，籃輿。(蕭)。【朝】보교【교】。舁車，步輜。	하	국외자

위의 표를 살펴보면 표제자와 한문 주석의 의미풀이에 있어서 일대다 대응 형식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에서 함께 사용되는 의미항을 먼저 제시한 후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의미항을 뒤에 덧붙여 놓은 형식이다. 그 예는 ‘上(차하홀 차)’자로 한문 주석에서 ‘웃【상】。下之對。놈홀【상】。尊也。인군【상】。君也。(漾)。올닐【상】。進也。오를【상】。登也。(養)。【朝】차하홀【차】。上給下上下下.’로 나타난다. ‘웃’의 의미항에서부터 ‘【朝】’라고 표시한 앞까지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함께 사용되는 의미 풀이이고 ‘【朝】’부터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의미항이다. 그런데 만약 【朝】의 표기가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것인지 모른다면 【朝】의 표기 기점으로 【朝】 앞부분까지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의미인지 【朝】 뒷부분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의미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朝】 표기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의미항이 여러 개일 경우 더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 대부분 【朝】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串(일흥 곳)’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朝】의 표기가 ‘일흥【곳】’地名, 竹串島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한국 고유한자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꽃창이【곳】。貫物竹釘’ 실제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의미 풀이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의미 풀이로 한국 고유한자의 풀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宕(탕건 탕)’은 한문 주석에서 ‘방탕홀【탕】。放也, 佚宕. 골 집【탕】。洞室. 석슈【탕】。石工, 宕戶。(漾). 蕩通. 탕건【탕】。官人懸帽, 宕巾。【朝】。’로 나타난다. 그런데 【朝】의 표기가 ‘宕(탕건 탕)’에 대한 한문 주석에서 마지막에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앞의 【朝】 표기 기점에 대한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宕’은 한문 주석에서 어느 부분이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설명일까? ‘宕’의 한문 주석에 나타나는 의미 풀이가 모두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설명인지, 마지막 부분인 ‘탕건【탕】。官人懸帽, 宕巾。【朝】’만이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설명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 다른 예로 ‘栖(눇 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대다 대응 형식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 중 한문 주석 마지막 부분에 【朝】가 나타나는 경우는 ‘宕(탕건 탕)’, ‘栖(눇 스)’, ‘桎(스슬 싱)’등 총 3차례였다. 이 중 ‘宕(탕건 탕)’과 ‘栖(눇 스)’, 는 한문 주석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의미항이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설명으로 【朝】의 표기 위치가 마땅히 ‘탕건 탕’과 ‘눇 스’의 앞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나머지 ‘桎(스슬 싱)’은 한문 주석에서 여러 의미항이 나타나지만 모두 한국 고유한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朝】의 표기 위치가 앞이든 마지막이든 상관은 없다. 하지만 【朝】의 표기 위치가 하나의 규칙으로 일관성이 있었다면 자전의 기능과 가치가 한층 더 높았을 것으로 본다.

이렇듯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수록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고유한자에 해당하는 표제자와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일대일 대응 형식일 경우 【朝】의 표기는 한문 주석 앞과 뒤에 나타난다. 둘째, 한국 고유한자에 해당하는 표제제와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일대다 대응 형식일 경우 【朝】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한국 고유한자의 설명이 시작되는 의미항 앞에 나타난다. 셋째, 표제자와 한문 주석의 일대다 대응 형식에서 【朝】의 표기가 예외적으로 한문 주석 맨 끝에 나타나는 경우는 한문 주석의 의미 풀이가 모두 한국 고유한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2) 한국 고유한자의 내용적 특징²³⁾

필자는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가 지니는 의미적 분류를 바탕으로 명칭(성씨/지명), 제도(관직/과거), 생활(의/식/주), 언어대응(단위/어법성분/고유어휘), 궁중어 등으로 나누어 한국 고유한자가 지니는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55자의 한국 고유한자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3) 한국 고유한자의 수량은 총 55자이지만 한국 고유한자에 해당하는 의미항이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 일대다 대응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의미항을 각각 따로 분석하였다. 이에 그 수량이 한국 고유한자의 수량과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漢鮮文新玉篇』에서 ‘桎’은 표제자와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일대다 대응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이다. 그래서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내용적 특징 분석에 있어서 그 의미항을 각각 분석하다보니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의 전체 수량보다 1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내용적 특징으로 분류한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의 수량은 총 56자이다.

(1) 명칭(성씨/지명)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忼 ²⁴⁾	국자	지명	산일홈【기】。山名, 忼怛。【朝】	상
2	櫟 ²⁵⁾	국자	지명	싸일홈【자】。地名, 櫟木城。【朝】	상
3	榘 ²⁶⁾	국자	지명	싸일홈【추】。地名, 榘郡。【朝】	상
4	碣 ²⁷⁾	국자	지명	【朝】따일홈【적】。地名, 碣城。	하
5	箕 ²⁸⁾	국자	지명	【朝】싸일홈【오】。地名, 箕城。	하
6	迳 ²⁹⁾	국자	지명	싸일홈【수】。地名, 迳城。【朝】	하
7	串 ³⁰⁾	국음자	지명	【朝】일홈【곶】。地名, 竹串島。	상
8	面 ³¹⁾	국의자	지명	【朝】면【면】。邑里之名。	하
9	鵲 ³²⁾	국음자	성씨	鳳古字。【朝】성【궁】。姓也。	하

- 24) ‘忼’는 『漢鮮文新玉篇』에서 ‘忼怛(기달)’의 뜻으로 사용된 국자이다. ‘忼怛’은 금강산의 다른 이름이다. ‘忼’의 자의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알 길이 없지만 ‘忼’의 독음이 ‘기’임은 『訓蒙字會』등에서부터 ‘기’로 나타나 있고 인명에 주로 쓰인 ‘긔’도 그 독음이 ‘기’이다. (김중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산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도 ‘산이름 기’로 사용되고 있다.
- 25) ‘櫟’는 『漢鮮文新玉篇』에서 ‘櫟木城’의 뜻으로 사용된 국자이다. ‘櫟木城’은 지명으로 쓰인 글자이다. ‘櫟’의 음은 미상이지만 그 글자가 형성으로 보아 독음이 ‘자’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의는 알 수 없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싸일홈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櫟’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땅이름 자’로 사용되었다.
- 26) ‘榘’는 『漢鮮文新玉篇』에서 ‘榘郡’의 뜻으로 지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자이다. ‘榘’는 음이 미상이라 하였으나 『字典釋要』나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그 음이 ‘추’로 나타난다. ‘榘’의 음을 ‘추’로 풀이한 것은 ‘榘’의 유추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중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싸일홈이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곶어름’이라 풀이하였다. 『大漢韓辭典』에서는 ‘榘’자가 수록되지 않았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싸리 추’로 사용되고 있다.
- 27) ‘碣’는 『漢鮮文新玉篇』에서 ‘碣城’의 뜻으로 지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자이다. ‘碣’은 ‘赤一作磧. 又作碣’으로 그 음이 ‘적’임을 알 수 있으나 자의는 미상이다. ‘碣城’은 ‘碣, 赤, 磧’으로 음의 대응에서 형성된 지명인 것이다. (김중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에서는 ‘싸일홈’,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따일홈’, 『新字典』에서는 ‘싸이름’으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땅 이름 적’으로 사용된다.
- 28) ‘箕’는 『漢鮮文新玉篇』에서는 ‘箕城’의 뜻으로 지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국자이다. 『字典釋要』에서는 ‘싸일홈’,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따일홈’, 『新字典』에서는 ‘버들고리’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에서 ‘箕’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버들고리 오’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리(箕筭)’는 키버들의 가지나 대오리 따위로 엮어서 상자같이 만든 물건으로 주로 옷을 넣어 두는 데 쓴다.
- 29) ‘迳’는 『漢鮮文新玉篇』에서 ‘杆城’의 뜻으로 고지명 ‘迳城’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국자이다. 지명 ‘杆城’은 ‘迳城-守城-水城’으로 변천되어 왔다. ‘迳城’은 개정 이전부터 쓰인 지명임을 알 수 있는데, ‘迳’의 음은 그 글자가 형성으로 보아 ‘수’임을 알 수 있으나 자의는 알 수 없다. (김중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싸일홈’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迳’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大漢韓辭典』역시 ‘迳’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땅 이름 수’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 30) ‘串’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竹串島’으로 지명표기에 사용된 국음자이다. 『字典釋要』에서는 ‘싸일홈’,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일홈’, 『新字典』에서는 ‘꼬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

한국 고유한자는 고유어의 표기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특히 인명과 지명의 고유명사가 고유한자로 많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고유한 인명과 지명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인명과 지명은 한자 수입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것으로 그 역원은 매우 오래되었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인명과 지명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 56자 중 9자로 이 중 성씨에 나타난 한국 고유한자는 ‘鳶’자 1자 뿐이고 나머지 8자는 지명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이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많은 성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씨에 사용된 한국 고유한자 ‘鳶’은 중국에도 없는 우리 고유의 성씨이기 때문에 이를 고유한자로 표기한 듯하다. 무엇보다도 중국 성씨와는 달리 우리 고유의 성씨이기 때문에 고유어로써 성씨를 창조하고 고유한자로 표기했다는 것은 주체의식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 고유한자는 지명표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고유지명 표기에서 고유한자가 형성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砮城’이나 ‘箕城’, ‘遼城’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지명에 쓰인 한국 고유한자는 대부분 자의가 미상으로 의미상의 내용 분석은 어려웠다. 하지만 적어도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串’의 고유한자를 살펴보면 지금도 ‘간절곶’이나 ‘호미곶’ 등의 한국 지명에 사용되고 있듯 한국의 지리적 특성으로 한국 고유한자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漢鮮文新玉篇』에서는 관직명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한국 고유한자는 관직명표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고유한자가 인명에서 지명, 관직명까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2) 제도(관직/과거)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牒 ³³⁾	국외자	관직	【朝】텀지【謁】。判任授官牒紙。	상
2	上 ³⁴⁾	국음자	관직	【朝】차하【차】。上給下, 上下。	상
3	帖 ³⁵⁾	국음자	관직	【朝】체지【체】。徒隸委任狀帖。	상
4	牌 ³⁶⁾	국음자	관직	【朝】비지【비】。下書于賤者曰牌旨。	상

語辭典』에서는 ‘땅 이름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

31) ‘面’은 『漢鮮文新玉篇』에서 ‘邑里之名’의 뜻으로 사용된 국외자이다. ‘면’은 지방 행정 구역 단위의 한가지로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지금의 도(道)에 해당하였고, 신라·고려·조선시대에는 현(縣)보다 작은 고을을 면이라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에는 군(郡) 밑에 두어 몇 개의 리(里)나 동(洞)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면’으로 풀이되어 있고, 『新字典』에서는 ‘面’이 수록되어 있지만 ‘면’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大漢韓辭典』에서 ‘면 면’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낮 면’으로 사용된다.

32) ‘鳶’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姓也’의 뜻으로 姓氏에 쓰인 국음자이다. ‘鳶’은 원래 ‘鳳’의 古字이며 오직 성씨에만 쓰였다. ‘鳶’氏는 오늘날에도 전하고 있는데 그 근본은 알 수 없으나 ‘鳶本胡姓’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胡姓’인 듯하다. (김중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에서는 ‘성’,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성’, 『新字典』에서는 ‘성’으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성 곽’으로 사용된다.

33) ‘牒’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判任授官牒紙’의 뜻으로 사용된 국외자이다. ‘텀지’는 대한제국 시대 관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5	宕 ³⁷⁾	국 의 자	관 직	탕건【탕】。官人懸帽, 宕巾。【朝】	상
6	桎 ³⁸⁾	국 의 자	과 거	스슬【싱】。籤也。【朝】	상
7	棍 ³⁹⁾	국 의 자	관 직	【朝】곤장【곤】。刑具, 棍杖。	상
8	武 ⁴⁰⁾	국 의 자	관 직	【朝】호반【무】。軍官, 虎班。	상
9	氅 ⁴¹⁾	국 의 자	관 직	【朝】창의【창】。官人平常服, 氅衣。	상
10	貼 ⁴²⁾	국 의 자	관 직	【朝】성접홀【접】。公文鈐印成貼。	하

임과의 임명서이다. 『字典釋要』에서는 ‘첨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텀지’라고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牒’이 수록되어 있지만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는 지니고 있지 않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공문 첨’으로 사용되고 있다.

- 34) ‘上’은 『漢鮮文新玉篇』에서 ‘上給下’의 뜻으로 쓰인 국음자이다. ‘上下(차하)’는 ‘치러주다’는 의미로 관아에서 돈이나 물품을 내어 주는 일을 말한다. 『漢鮮文新玉篇』에서 ‘上’ 음은 ‘차’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어원은 확실히 알 수 없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차하할’로 풀이되었고, 『新字典』에서는 표제자로 수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존재하지 않았다. 『大漢韓辭典』 역시 ‘上’이 수록되어 있지만 ‘치러주다’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차하’로 풀이되었다.
- 35) ‘帖’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徒隸委任狀帖’의 뜻으로 사용된 국음자이다. ‘체지’는 관아에서 구실아치와 노비를 고용할 때 쓰던 사령장(辭令狀)으로 첨지(帖紙)·체(帖)·체장(帖帳)으로 쓰였다. 『字典釋要』에서는 ‘체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체지’, 『新字典』에서는 ‘테지’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체지 체’로 사용된다.
- 36) ‘牌’은 『漢鮮文新玉篇』에서 ‘下書于賤者曰牌旨’를 뜻하는 국음자이다. ‘배지’는 ‘패지(牌旨)’의 변한말로 조선 시대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던 공식 문서이다. 특히, 양반이 노비에게 금전 거래를 대신하게 하던 위임장을 이른다. ‘牌子’, ‘牌旨’의 경우에만 ‘배’로 되어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모두 ‘패’이다. 따라서 그 현실음도 ‘牌子’, ‘牌旨’의 경우에만 ‘배’로 읽히고 있다. ‘牌’의 현실음 ‘패’는 古音 ‘배’의 격음화(거센소리되기라고도 한다. 평음인 ‘ㄱ·ㄷ·ㄴ·ㅈ’이 ‘ㅎ’과 결합하여 각각 ‘ㄱ·ㅌ·ㄷ·ㅈ’의 거센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ㅎ’이 앞에 오는 경우를 순행적 격음화라고 하고, ‘ㅎ’이 뒤에 오는 경우를 역행적 격음화라고 한다.)라 하겠다. 한자음에 있어서 격음화 현상은 허다하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牌’은 『字典釋要』에서 ‘배지’, 『漢鮮文新玉篇』에서 ‘빅지’라고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 ‘牌’자가 수록되어 있지만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大漢韓辭典』에서 ‘배지 배’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패 패’로 사용되고 있다.
- 37) ‘宕’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官人懸帽’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탕건(宕巾)’은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冠)의 하나로 말총을 잘게 세워서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게 턱이 지도록 뜨는 것이다. 집 안에서는 그대로 쓰고 외출할 때는 그 위에 갓을 썼다. ‘宕’은 『字典釋要』에서 ‘탕·건’, 『漢鮮文新玉篇』에서 ‘탕건’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宕’자가 나타나지만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는 담고 있지 않다. 『大漢韓辭典』에서는 ‘골집 탕/방탕할 탕/석수 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탕건 탕’으로 사용된다.
- 38) ‘桎’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籤也’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古制에서 ‘찌(籤)’의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전강(殿講)이나 강경(講經) 때에 강생(講生)이 뿔뿔 대쪽으로 길이 17.5cm, 넓이 5mm, 두께 5mm이며, 그 위에 강장(講章)의 글귀를 하나씩 따로 써서 직경 11cm, 길이 18cm 되는 통에 넣었던 것이다. 『字典釋要』에서 ‘桎’은 ‘사슬’,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스슬’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찌’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는 ‘사슬 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장승 생’으로 사용되고 있다.
- 39) ‘棍’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刑具’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곤장(棍杖)’은 예전에 죄인의 불기를 치던 형구 또는 그 형벌을 나타내는 것으로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든 것이다. ‘棍’은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곤장’의 의미로 풀이하였지만 『新字典』에서는 한국 고유한자라고 보지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 ‘곤장 곤’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몽둥이 곤’으로 사용된다.

한자가 수입된 초기에는 비단 인명이나 지명뿐만 아니라 관직명까지 한자의 음훈을 차용하여 한국 고유한자를 표기 하였고, 신라 중기에 이르러서는 지배계급과 한학자들에 의하여 국호나 왕호, 왕명 또는 인명 등이 한자어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관직명은 물론 제도에 관련된 것도 점차 한자어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漢鮮文新玉篇』에서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 중 제도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니 ‘上, 牌, 斨’등이 있다. 이것은 ‘차하홀’, ‘비지’, ‘창의’등의 의미로 풀이되는데 주로 신라시대나 조선시대 왕실이나 관직, 관료들에게서 나타난 한국 고유한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오랜 전부터 儒敎思想에 입각하여 많은 한자어가 유교문화와 관련된 한자가 많이 출현하게 된다. 특히 과거제도에 관한 한국 고유한자가 많이 보인다. 이는 과거제도가 비록 중국에서 유입되어 온 것이지만 이미 신라시대를 거쳐 한국식 과거제도로 변화하고 정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과거제도와 관련된 한국 고유한자는 ‘姓’ 1자 밖에 없다.

(3) 생활(의/식/주)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垞 ⁴³⁾	국자	주	집터【디】。近屋地。【朝】	상
2	藏 ⁴⁴⁾	국자	의	장【장】。所以藏衣。【朝】	상
3	沓 ⁴⁵⁾	국자	주	【朝】논【답】。水田。	하
4	綰 ⁴⁶⁾	국자	의	선【선】。衣緣曰綰。【朝】	하
5	鎔 ⁴⁷⁾	국자	식	복죽【선】。量酒油等器。【朝】	하
6	木 ⁴⁸⁾	국의자	의	【朝】무명【목】。棉織。	상
7	湫 ⁴⁹⁾	국음자	주	【朝】보막을【보】。蓄水溉田。	상

40) ‘武’는 『漢鮮文新玉篇』에서 ‘軍官, 虎班’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虎班’은 ‘鶴班(학반)’을 달리 이르는 말로 관복에 학흉배를 달았다는 데서 이르는 말이다. ‘鶴班’은 또 ‘東班(동반)’이라고도 일컫는데 ‘東班’은 양반 가운데 ‘문반(文班)’을 달리 이르던 말로 궁중의 조회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武’는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 ‘호반’이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건장할/호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고유한자로 보지 않았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호반 무’로 사용된다.

41) ‘斨’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斨衣’의 뜻으로 쓰인 국의자이다. 『집운』에서 ‘斨’은 ‘齒兩切, 折羽爲裘衣’라 하여 중국의 사대부들이 입은 옷과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이 입은 옷이 다를 수 있다. ‘斨衣’는 벼슬아치가 평상시에 입는 옷옷으로 소매가 넓고 뒷술기가 갈라져 있는 것을 말한다. 『字典釋要』에서는 ‘창’의,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창의’라고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斨’이 수록되어 있지만 ‘창의’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창의 창’으로 사용된다.

42) ‘貼’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公文鈐印成貼’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검인(鈐印)’은 관청에서 쓰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字典釋要』에서는 ‘성접할’,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성접할’의 의미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貼’자가 수록되어 있지만 ‘부틸/접어들/탕할○던당할’의 의미로 나타나며, 『大漢韓辭典』에서는 ‘붙일 첩/접어들 첩/전다할 첩’으로 사용되어 있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붙일 첩’으로 사용된다.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8	太 ⁵⁰⁾	국일자	식	【朝】콩【태】。菽也。	상
9	袍 ⁵¹⁾	국일자	의	【朝】도포【포】。平當禮服, 道袍。	하
10	鄉 ⁵²⁾	국일자	주	【朝】시골【향】。外邑。	하

- 43) ‘岱’는 『漢鮮文新玉篇』에서 ‘近屋地’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자이다. ‘岱’는 고려시대나 조선초기에는 ‘代’와 ‘土’가 각기 써오다가 근세에 와서 ‘岱’가 된 듯하다. 오늘날 ‘岱地’, 家岱 등에 쓰이는 국자이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집터’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터’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는 ‘집터 대’,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터 대’로 사용되고 있다.
- 44) ‘藏’은 『漢鮮文新玉篇』에서 ‘藏衣’를 뜻하는 국자이다. ‘藏衣’는 농장, 옷장, 찬장, 책장 따위의 물건을 넣어 두는 가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 모두 ‘장’으로 풀이하였다. 『大漢韓辭典』에서 ‘의장 장/장롱 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장 장’으로 사용된다.
- 45) ‘畚’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水田’을 뜻하는 것으로 ‘水’와 ‘田’의 두 글자를 배합하여 조차한 국자이다. ‘畚’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쓰여 왔다. ‘畚’의 음은 ‘답’이라 하는데 이는 ‘沓, 踏, 諸’등의 유추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논’으로 풀이하였고, 『大漢韓辭典』에서 ‘거듭 답/물끓어 넘칠 답/말 줄줄할 답/할할 답/무릅쓸 답/탐할 답/느른할 답/섞일 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답답할 답’으로 사용된다.
- 46) ‘緇’은 『漢鮮文新玉篇』에서 ‘衣緣’의 뜻으로 쓰인 국자이다. ‘衣緣’은 옷단의 옛말로 옷자락 끝의 가장자리를 안으로 접어 붙이거나 감친 부분을 말한다. 『字典釋要』에서는 ‘緇’이 ‘선’,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선’, 『新字典』에서는 ‘선두를’이라고 풀이하였고, 『大漢韓辭典』에서 ‘緇’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선두를 선’으로 사용된다.
- 47) ‘鐸’은 『漢鮮文新玉篇』에서 ‘量酒油等器’의 뜻으로 사용된 국자이다. ‘복자’는 다른 말로 ‘기름복자’라고 하는데 기름을 되는 데 쓰는 그릇이다. 모양이 접시와 비슷하고 한쪽에 귀뚜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복자’로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는 ‘鐸’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복자 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 48) ‘木’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棉織’의 뜻으로 쓰인 국의자이다. ‘木’이 국의자라고 풀이한 설도 있지만 ‘무명’은 중국어 ‘木棉’에서 형성된 외래어이므로 이를 국의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木’은 국음으로 ‘모’인데 이는 ‘목과(木瓜)>모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공양미(供養米)>고양미’, ‘평양(平壤)>평양’등과 같은 동음생략현상에서 형성된 국음자라 하겠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에서는 ‘무명’,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무명’, 『新字典』에서는 ‘미명’으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에서 ‘무명 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무명으로 풀이되었다.
- 49) ‘泔’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畜水溉田’을 뜻하는 국음자이다. ‘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의 하나로 독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泔’를 ‘보막을’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보맥이’라고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 ‘보마기 보’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보 보’로 사용된다.
- 50) ‘太’는 『漢鮮文新玉篇』에서 ‘菽也’로 쓰인 국의자이다. ‘太’는 ‘泰’의 속자로 원래의 뜻은 ‘大也, 甚也’로, ‘大豆’의 뜻은 근세에 와서 형성된 것이다.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콩’으로 풀이하였고, 『大漢韓辭典』에서 ‘콩 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콩’으로 풀이되었다.
- 51) ‘袍’는 『漢鮮文新玉篇』에서 ‘平當禮服’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도포’는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길옷을 말하는데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단 폭을 댄 것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袍’를 ‘도포’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袍’자가 ‘도포’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한국 고유한자로 여기지는 않았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도포 포’로 사용된다.
- 52) ‘鄉’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外邑’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신라 때부터 조선 전기까지 있었던 특별 행정 구역으로 천민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던 곳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시골’이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鄉’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大漢韓辭典』에서는 ‘면 면’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시골 향’으로 사용된다.

한국 고유한자는 한국의 생활방식에 의해 생겨나는 것도 있다. 그 예가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櫛, 綰, 木, 袍’등처럼 ‘의복’과 관련 있는 한국 고유한자, ‘鑪, 太’등처럼 ‘음식’과 관련된 한국 고유한자 ‘垚, 畚, 泔, 鄉’등처럼 ‘주거지’와 관련된 한국 고유한자로 각 각 나타난다.

(4) 언어대응(단위/어법성분/고유어휘)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𪛗 ⁵³⁾	국자	언어단위	마두리【두】。穀不滿斛。【朝】	하
2	卜 ⁵⁴⁾	국외자	언어단위	【朝】짐【복】。擔也。	상
3	套 ⁵⁵⁾	국음자	어법성분	【朝】전례【투】。例也。	상
4	頃 ⁵⁶⁾	국음자	어법성분	【朝】연고【탈】。故也。	하
5	把 ⁵⁷⁾	국외자	언어단위	【朝】발-【파】。庾也。	상
6	姓 ⁵⁸⁾	국외자	고유어휘	장승【성】。路表長姓。【朝】	상
7	級 ⁵⁹⁾	국외자	언어단위	【朝】두름【급】。編魚二十曰級。	하
8	畚 ⁶⁰⁾	국외자	언어단위	【朝】비미【렬】。畚區。	하
9	結 ⁶¹⁾	국외자	언어단위	【朝】목【결】。稅禾百負。	하
10	腎 ⁶²⁾	국외자	고유어휘	【朝】자-지【신】。陰莖。	하

- 53) ‘𪛗’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穀不滿斛’를 뜻하는 국자이다. ‘마두리’는 ‘마투리, 무치’로 지금도 전라도·경상도 지방에서 ‘섬(石)을 단위로 셀 때 남는 몇 말’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마두리’라고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무지○마두리’로 풀이하였다. 『大漢韓辭典』에서 ‘𪛗’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마두리 두’로 사용된다.
- 54) ‘卜’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擔也’의 뜻으로 사용된 국외자이다. 원래의 뜻과는 관계없이 ‘지다(負)’의 동명사 ‘짐’에 해당한다. 이는 ‘卜’이 ‘負’의 省文이라는 이론은 일찍부터 있었으나 그 자형상으로 보아 믿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짐’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 사람이 한 번 지어 나를만한 분량의 꾸러미를 세는 단위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짐’이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짐바리’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 ‘짐바리 복’으로 사용되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짐’으로 풀이되었다.
- 55) ‘套’은 『漢鮮文新玉篇』에서 ‘例也’의 뜻으로 사용된 국음자이다. ‘套’은 『漢鮮文新玉篇』에서 그 음을 ‘투’로 나타나고, 『字典釋要』와 『新字典』에서도 모두 ‘투’로 읽는다. 이는 ‘套’의 원래 음은 ‘토’로 읽는데 유추작용으로 ‘토>투’로 변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전례’라고 풀이하였고, 『大漢韓辭典』에서 ‘전례 투’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套’가 수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 속에 ‘전례’의 의미는 살펴볼 수 없었다.
- 56) ‘頃’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故也’로 ‘까닭, 연고, 이유’등의 뜻으로 고문헌에 많이 쓰이는 국음자이다. ‘頃’의 음과 의미는 ‘有故’를 뜻하는 ‘탈’인데, 굳이 ‘頃’자를 사용한 이유는 아직 미상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연고’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탈날’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는 ‘탈날 탈’로 사용되고,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탈 탈’로 사용된다.
- 57) ‘把’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庾也’를 뜻하는 국외자이다. ‘발’은 길이의 단위이다. 한 발은 두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로 대략 10尺의 길이를 말한다.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는 모두 ‘발’로 풀이하였고, 『大漢韓辭典』에서 ‘발 파’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발로’ 풀이되었다.

한국의 고유한자에는 많은 양사가 나타난다.⁶³⁾ 『漢鮮文新玉篇』에서도 언어대응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 총 10자 중에 ‘辻, 卜, 把, 級, 畱, 結, ’ 등 6자가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양사이다. 이들은 중국어에서 사용하는 양사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 가령 중국어에서는 ‘수사+양사+명사’의 순으로 ‘一位老师’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명사+수사+양사’의 형식으로 ‘한 분의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기 보단 ‘선생님 한 분’, ‘세 권의 책’이라고 말하기 보단 ‘책 세 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는 중국어에서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놓이고, 한국어에서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놓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한국어 수식어 표현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漢鮮文新玉篇』에서 양사에 해당하는 한국 고유한자는 대부분 정확한 수량을 나타내는 개체 양사보다는 복수의 사물을 하나의 집합으로 세는 집합양사 또는 대략적인 수량을 표현하는 불특정양사가 많이 보인다.

(5) 특생(동물/어류)

- 58) ‘性’은 『漢鮮文新玉篇』에서 ‘路表長性’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장생’은 현대국어로 ‘장승’이다.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로 10리나 5리 간격으로 이수(里數)를 나타내 이정표 구실을 하거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것이다. 『字典釋要』에서는 ‘장승’으로 풀이되었고,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장승’으로 풀이되었으며, 『新字典』에서는 ‘표지’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는 ‘장생 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장승 생’으로 사용되고 있다.
- 59) ‘級’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編魚二十曰級’으로 ‘두름’을 나타내는 국의자이다. ‘두름’은 경남 방언으로 ‘두렁’을 말한다. ‘두렁’은 일반적으로 논이나 밭 가장자리에 경계를 이룰 수 있도록 두드룩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漢鮮文新玉篇』에서 말하는 ‘두름’은 숫자 ‘스물’을 세는 단위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두름’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층〇두름’의 의미로 수록되어 있지만 ‘級’을 한국 고유한자로 보지는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 ‘두름 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두름’으로 풀이되었다.
- 60) ‘畱’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畱區’를 뜻하는 국의자이다. ‘배미’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구획된 논을 세는 단위를 말한다. 『字典釋要』에서는 ‘배미’로,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비미’, 『新字典』에서는 ‘논밤이〇도가리’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에서 ‘논 배미 렬’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논 배밀 렬’로 사용된다.
- 61) ‘結’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稅禾百負’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묵’은 ‘겉’이라고 말하는데 의 존명사로 논밭 넓이의 단위를 말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쪼뼛 것으로 1결은 1동의 열 배로, 그 넓이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字典釋要』에서는 ‘먹’,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묵’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結’이 ‘매질’의 의미로 수록되어 있지만 한국 고유한자로 여기지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 ‘묵 겉’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묵’으로 풀이되었다.
- 62) ‘腎’은 『漢鮮文新玉篇』에서 ‘陰莖’의 뜻으로 사용된 국의자이다. ‘음경’은 귀두, 요도구, 고환 따위로 이루어진 남자의 바깥 생식 기관을 말하는데 ‘음부’라고도 일컫는다. 『字典釋要』에서는 ‘자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자-지’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腎’자에 ‘콩팥〇자지’의 의미가 나타나지만 한국 고유한자로 보지는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 ‘불알 신/자지 신’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콩팥 신’으로 사용된다.
- 63) 하영삼, 『한국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 중국어문학 제33집, 1999.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獬 ⁶⁴	국자	동물	【朝】돈피【돈】。貂也, 獬皮。	상
2	獬 ⁶⁵	국자	동물	【朝】돈피【돈】。貂也, 獬皮。	상
3	魴 ⁶⁶	국자	어류	【朝】망둥이【망】。魚名。	하
4	胖 ⁶⁷	국일자	동물	【朝】양【양】。牛胃。	하

한국 고유한자는 한국의 지리적 환경과 자연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총 4자로 이 중 3자가 동물의 명칭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1자가 어중에 대한 명칭이다. 한국의 지리적 특징으로 살펴볼 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점과 한국의 자연적 환경에서 연해가 한류와 난류가 합쳐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한국에는 중국이나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어패류가 상당히 많다.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어패류의 명칭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6) 궁중어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棕 ⁶⁸	국자	궁중어	【朝】숙궁【숙】。各宮幹事者, 棕宮。	하
2	櫛 ⁶⁹	국자	궁중어	의덕【디】。皇室所御服, 衣櫛。【朝】	하
3	刺 ⁷⁰	국음자	궁중어	【朝】수라【즈】。御供曰水刺。	상
4	輶 ⁷¹	국일자	궁중어	【朝】보교【교】。昇車, 步輶。	하

- 64) ‘獬’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獬皮’의 뜻을 가진 국자이다. ‘돈피’는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고급 모피로 인정받고 있으며 품질에 따라 검은담비의 모피인 ‘갈’을 상등으로 치고, 노랑담비의 모피인 ‘돈피’와 유럽소나무담비의 모피인 ‘초서피(貂鼠皮)’를 중등으로 치며, 흰담비의 모피인 ‘백초피(白貂皮)’를 하등으로 친다. ‘돈피’의 다른 말로는 사피(斜皮)·서피(黍皮)·초피(貂皮)라고도 일컫는다. 『字典釋要』와 『新字典』에서는 ‘獬’이 나타나지 않고, 『漢鮮文新玉篇』에서만 ‘돈피’의 의미로 풀이되어 나타난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도 ‘獬’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 65) ‘獬’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獬皮’의 뜻을 가진 국자이다. 위의 ‘獬’와 동일한 의미의 ‘돈피’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돈피’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돈피/갈’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돈피 돈’으로 사용된다.
- 66) ‘魴’은 『漢鮮文新玉篇』에서 ‘魚名’을 뜻하는 국자이다. ‘魴’은 ‘魴魚’를 말하는데 『국어사전』에 ‘망둥이’라고 실려 있다. ‘망둥이’는 ‘망둑어’라고도 불리는데 망둑어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몸의 길이는 20cm 정도이며, 배지느러미가 빨판처럼 되어 있다. 바닷가의 모래땅에 산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망둥이’로 풀이하였고, 『新字典』과 『大漢韓辭典』에는 ‘魴’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망둥이 망’으로 사용된다.
- 67) ‘胖’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牛胃’를 뜻하는 국일자이다. ‘胖’은 원래 ‘牘’으로 잘못되어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牘’을 『집운』에서 살펴보면 ‘如陽切, 肥也’로 나타나고, ‘胖’은 ‘子唐切, 羝羊也’로 나타나는데 ‘羝羊’은 ‘수 양’으로 ‘胖’의 부수는 오른편의 ‘羊’에 있다. ‘牘’은 ‘胖’으로 잘못 사용하다가 ‘牛胃’의 뜻으로 굳어진 것이 ‘胖’인 듯하다. (김중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胖’이 ‘양’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그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도 ‘胖’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쇠뺨통 양’으로 사용된다.
- 68) ‘棕’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各宮幹事者’의 뜻으로 사용된 국자이다. ‘棕’의 음은 ‘수’와 ‘숙’ 두 가지

위의 (2)제도와 관련된 한국 고유한자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왕과 백성, 관료와 노비, 남과 여 등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의 칭위 등의 구분이 매우 분명하고 세밀하게 나뉘어 있다. 이는 계급차별과 남녀차별의 관념이 나타나는 것으로 당시 한국이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관료주의나 신분질서 체계가 뚜렷하게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왕권의 칭위 외에도 그 왕이 살아가는 궁중에 존재하는 많은 사물에 대한 명칭과 사람의 칭호도 필요하였을 것이고 궁궐 안의 생활방식과 환경 등에 의하여 한국 고유한자가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가령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稼’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궁실의 창고’ 혹은 ‘궁중을 지키는 이’를 뜻하고, ‘襟’은 ‘임금이 입는 옷’을 말하며, ‘刺’는 ‘임금에게 드리는 요리’를 의미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궁중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당시 궁중어휘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이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신분질서 체계가 뚜렷하게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한국의 역대 군왕에 대한 존경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⁷²⁾

(7) 일반어휘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𤝵 ⁷³⁾	국자	일반어휘	다짐돌【고】。誓必行【朝】	상
2	𤝵 ⁷⁴⁾	국자	일반어휘	너흐를【람】。啞也。【朝】	상
3	闕 ⁷⁵⁾	국자	일반어휘	서실홀【서】。偶失物, 闕失。【朝】	하
4	媿 ⁷⁶⁾	국음자	일반어휘	시집【시】。夫家。【朝】	상
5	𤝵 ⁷⁷⁾	국자	일반어휘	겁닐【겁】。怯俗字。【朝】	상

로 나타나는데 『漢鮮文新玉篇』에서는 그 음을 ‘숙’이라고 한다. 그런데 ‘稼’의 ‘수’음은 ‘禾’로 유추할 수 있으나 ‘숙’음은 이해할 수 없다. 어쨌든 ‘稼宮(숙궁)’은 궁방(宮房)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을 말한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숙궁’이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궁소임’라고 풀이하였다. 『大漢韓辭典』에서 ‘稼’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궁조임 숙’으로 사용된다.

69) ‘襟’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御服’을 일컫는 국자이다. ‘어복’은 임금의 옷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衣襟’로 미루어 보아 이는 ‘衣襟’의 합성자로 근세에 형성된 듯하다. 궁중어에 ‘胴衣襟’란 말이 있는데, 衣襟에 胴衣(동저고리)의 ‘胴’을 덧붙여 사용한 궁중어이다. ‘襟’은 『字典釋要』에서는 ‘의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의디’, 『新字典』에서는 ‘옷감’으로 나타나고, 『大漢韓辭典』에서는 ‘襟’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임금옷 대’로 사용된다.

70) ‘刺’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御供曰水刺’의 뜻으로 궁중어인 ‘水刺’에서 형성된 국음자이다. ‘刺’은 ‘水刺’가 유일한 예로서 고문헌에 산재하고 있으며, ‘水刺’는 ‘요리, 조리’를 뜻하는 몽고어 ‘Siu-La’의 음차표기로 이는 궁중에서만 사용된 궁중어이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수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刺’자가 수록되어 있지만 ‘수라’의 의미는 담고 있지 않다. 『大漢韓辭典』에서 ‘수라 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수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71) ‘輜’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昇車’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의자이다. ‘步輜(보교)’는 사람이 메는 가마의 하나로 네 기둥을 세우고 사방으로 장막을 둘러쌌으며, 뚜껑은 가운데가 솟고 네 귀가 내밀어서 정자(亭子)의 지붕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닥과 기둥과 뚜껑은 각각 뜯겨져 있다. ‘輜’은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 ‘보교’라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가마’로 풀이하였지만 한국 고유한자로 여기지 않았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가마 교’로 사용된다.

72) 하영삼, 「한국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 『중국어문학』, 제33집, 1999.

(8) 민속놀이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𣎵 ⁷⁸	국외자	놀이	놀【𣎵】. 𣎵枝. 【朝】(眞).	상

(9) 공구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鋤 ⁷⁹	국외자	공구	【朝】변탕【탕】. 治木器, 邊鋤.	하

- 73) ‘𣎵’는 『漢鮮文新玉篇』에서 ‘誓必行’으로 이두표기의 ‘倭音(다딤)’에서 형성된 국자이다. ‘다딤’은 동사 ‘다디다’의 명사형으로 음차 표기한 것이다.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근세에 형성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동사 ‘다디다’는 명사형으로 ‘다딤’과 ‘다집’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고문헌에서는 ‘다딤’과 ‘다집’이 다 같이 쓰이고 있다. ‘다디다’는 원래 ‘供辭’와 ‘服罪之文’의 뜻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다지다’ 또는 ‘따지다’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기록이 없어 확실한 연대나 제자원리나 자원을 알 길이 없으나 근세 이두문헌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근세에 형성된 조자인 듯하다. (김중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다집’의 의미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도 ‘다집’으로 풀이하였지만 한국 고유한자로 여기지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는 ‘倭’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디딤’로 사용된다.
- 74) ‘𣎵’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啞也’의 뜻으로 사용된 국자이다. ‘𣎵’은 ‘썩다, 물다’의 뜻은 가진 국자로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너흐를’의 의미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𣎵’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는 ‘입에 넣을 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그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 75) ‘𣎵’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偶失物’의 뜻을 가진 국자로 일찍부터 쓰였다. ‘𣎵’의 근세음은 ‘서’이나 古音은 ‘西’와 같이 ‘세’라 하였다. ‘𣎵’은 ‘𣎵失’에 물건을 흐지부지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데 그 뜻을 미루어 현재 사용되는 언어로 ‘서두르’의 ‘서’와 동의어가 아닌가 한다. 사실 ‘𣎵’의 음은 ‘西’의 유추로 보아 ‘서’(서)가 틀림없다. (김중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𣎵’은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서실할’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일힐’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大漢韓辭典』에서는 ‘골집탕/방탕할 탕/석수 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잃을 서’로 사용된다.
- 76) ‘媿’는 『漢鮮文新玉篇』에서 ‘夫家’의 뜻으로 사용된 국음자이다. 『집운』에서 ‘媿’는 ‘新慈切’로 나타나 있고 ‘媿女字或司’라 하여 ‘女’를 뜻하고 있는데 ‘媿’의 음이 ‘시’로 바뀐 것이다.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에서 모두 ‘시집’으로 풀이하였고,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모두 ‘시집 시’로 사용된다.
- 77) ‘𣎵’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怯俗字’라고 하여 ‘怯’의 이체자이다. ‘𣎵’은 『字典釋要』, 『漢鮮文新玉篇』, 『新字典』등에서 모두 ‘怯俗字’로 나타나는데 『大漢韓辭典』에서는 ‘𣎵’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겁낼 겁’으로 사용되고 있다.
- 78) ‘𣎵’은 『漢鮮文新玉篇』에서 ‘𣎵枝’의 뜻으로 사용되는 국외자이다. ‘𣎵枝’는 다른 말로 ‘擲𣎵(척사)’라고 하는데 ‘척사’는 민속놀이의 하나인 ‘웃놀이’를 말한다. ‘𣎵’이 『字典釋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놀’이라 하였다. 『新字典』에서는 ‘𣎵’이 ‘수가락/뿔수가락’의 의미로 나타나고 한국 고유한자는 아니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웃 사’로 사용된다.
- 79) ‘鋤’은 『漢鮮文新玉篇』에서 ‘治木器’의 뜻으로 사용된 국외자이다. ‘邊鋤(변탕)’은 목재의 가장자리를 곧게 밀어 내거나 모서리를 턱지게 깎아 내는 대패를 말한다. 『字典釋要』와 『漢鮮文新玉篇』에서는 모두 ‘변탕’으로 풀이하였고, 『新字典』에서는 ‘대패’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新字典』에서는 ‘鋤’자를 한국 고유한자로 간주하지 않았다. 『大漢韓辭典』에서 ‘변탕 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鋤’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10) 친족칭호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娚 ⁸⁰⁾	국이자	칭호	【朝】오라비【남】。姊妹謂男兄弟曰娚。	상

(11) 기타

번호	표제자	분류	내용	원문	비고
1	迭 ⁸¹⁾	국자	*	자력【거】。物不滿束。【朝】	하

이상의 예들을 통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8>

주제	분류	수량	백분율
명칭(9)	성씨	1	16.1%
	지명	8	
제도(10)	관직	9	17.8%
	과거	1	
생활(10)	의	4	17.8%
	식	2	
	주	4	
언어대응(10)	언어단위	6	17.8%
	어법성분	2	
	고유어휘	2	
특생(4)	동물	3	7.1%
	어류	1	
궁중어(4)	궁중어	4	7.1%
일반어휘(5)	일반어휘	5	8.9%

80) ‘娚’은 『漢鮮文新玉篇』에서 ‘姊妹謂男兄弟’으로 ‘오라비’를 뜻하는 국이자이다. 『字典釋要』에서는 ‘올아비’로 풀이하였고, 『漢鮮文新玉篇』과 『新字典』에서는 ‘오라비’로 풀이하였다. 『大漢韓辭典』과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모두 ‘오라비 남’으로 사용된다.

81) ‘迭’은 『漢鮮文新玉篇』에서 ‘物不滿束’의 뜻으로 사용된 국자이다. 고문헌에서 ‘有字無音’으로 밝히고 있는 고유한자이다. 그러나 ‘迭’을 ‘가’라 함은 ‘怯’의 유추라 하겠다. ‘迭’은 ‘자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자래’라는 뜻은 현대어로 알 수가 없다. 『큰사전』과 『국어대사전』에 ‘멜나무’, ‘생나무’의 삼마니라는 말로 나타나 있는데 ‘束薪’과 다소 관계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字典釋要』에서는 ‘자래’, 『漢鮮文新玉篇』에서는 ‘자리’, 『新字典』에서는 ‘자내○자래’로 각각 나타나고, 『大漢韓辭典』에서 ‘迭’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자래 거’로 사용된다.

주제	분류	수량	백분율
민속놀이(1)	민속놀이	1	1.8%
공구(1)	공구	1	1.8%
친족칭호(1)	친족칭호	1	1.8%
기타(1)	기타	1	1.8%
총계		56	100%

6. 결론

한국은 통일신라 이후부터 한자와 한문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다보니 일찍부터 중국 문화를 수입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중국의 문자인 한자와 한문이 가지는 풍부한 문화어휘도 함께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한국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언어와 통사구조 및 어법구조, 음운조직이 다르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 뿐 아니라 지리적 위치, 생활 환경, 사회 문화, 관념적 사고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화적 양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생활에 맞는 한자어의 생성이 필요했고 이에 지금의 한국 고유한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고유한자는 우리의 언어와 문자 사상에서 그 가치와 의의는 지대하다. 때문에 고유한자 하나 하나에 대한 학적 구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朝】의 표기를 중심으로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의 특징은 크게 3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의 수량은 총 55자인데, 그 중 국의자가 23자가 출현하는데 41.8%로 가장 많았다. 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고유한자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베트남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대부분 형성자로 중국 역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한자를 매년 만들 수가 없다.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한자에 음·의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그 음과 의미가 정착되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자 역시 새롭게 창조되어 생성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고유한자가 국의자에 포함된다.

둘째, 『漢鮮文新玉篇』의 한국 고유한자 수록 체계는 표제항에 나타나는 고유한자와 풀이항에 나타나는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일대일 대응 형식일 경우 한문 주석 앞과 뒤에 【朝】가 표기되고, 고유한자와 한문 주석의 의미항이 일대다 대응 형식일 경우 【朝】는 한국 고유한자 설명이 시작되는 의미항 앞에 표기된다. 그런데 때때로 일대다 대응 형식이지만 【朝】의 표기가 한문 주석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한문 주석의 모든 의미항이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풀이이다. 이렇듯 한자가 가지는 특징 상 하나의 한자에 여러 개의 의미가 대응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사전이나 자전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없던 다른 체례를 가지고 있는 사전 혹은 자전이라면 그 체례를 정확하게 밝혀 놓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朝】의 수록 체계의 방식과 규칙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셋째, 내용적인 각도에서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는 언어대응에 관련된 고유한자가 10자, 제도(관직/과거)와 생활(의/식/주)과 관련된 고유한자가 각 각 10자씩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인명과 지명을 표기하는 고유한자가 9자, 일반어휘가 5자, 궁중어와 특생(동물/어류)이 각 각 4자씩, 친족칭호, 공구, 기타에 해당하는 한자가 각 각 1자씩 나타났다. 먼저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언어대응에 관련된 고유한자는 대부분 ‘양사’에 포함된다.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양사는 대부분 대략적인 수량을 세는 불특정양사였다. 그리고 제도나 궁중어에 관련된 고유한자가 많이 나타난 것은 한국이 오래 전부터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궁중에서만 오직 사용되는 궁중어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이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관료주의나 신분질서 체계가 뚜렷하게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거제도에 관한 한국 고유한자도 많이 보이는데 이는 과거제도가 비록 중국에서 유입되어 온 것이지만 이미 신라시대를 거쳐 한국식 과거제도로 변화하고 정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명표기나 인명표기에 쓰인 고유한자는 한국의 지리적인 특징으로 우리에게 맞는 성씨와 인명을 만들고자 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과 의미는 미상이 많다. 단지 이를 형성과 유추에 의하여 음과 의미를 추정할 것이 많다. 하지만 이들을 고유한자로 표기했다는 것은 국어표기의 한 주체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漢鮮文新玉篇』에는 55자, 극히 소수의 한국 고유한자가 출현하였지만 『漢鮮文新玉篇』을 포함한 여타 다른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우리 고유한자에는 우리의 생활방식이나 국가의 제도문화, 사유방식 등 상당히 풍부한 문화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의 고유한자가 현 국어생활에서는 사용빈도가 낮아서 홀시되고 점차 사라져가는 경향이고 이미 소실된 것도 상당수다. 그러나 우리 고유한자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한자 사용의 역사적 과정을 밝혀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고유의 문화적 정서를 찾는 어떤 실마리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유한자의 발굴은 물론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학문적 구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초보적이긴 하나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한국 고유한자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후 『漢鮮文新玉篇』에 나타나는 【日】과 【華】 등의 표기를 근거로 일본과 중국의 고유한자 특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한·중·일 고유한자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해 볼 계획이다. 한국 고유한자의 흔적이 비록 많이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남겨진 자료를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해 나간다면 우리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국의 고유한자와 기타 한자문화권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崔世珍, 『訓蒙字會』, 大提閣, 1527.
柳希春, 『新增類合』, 1576.
鄭卿一, 『全韻玉篇』, 미상, 1819.
鄭允容, 『字類註釋』, 건국대학교출판부, 1856.
鄭益魯, 『國漢文新玉篇』, 平壤: 耶蘇教書院, 1908.
池錫永, 『字典釋要』, 京城: 匯東書館, 1909.
玄公廉, 『漢鮮文新玉篇』, 京城: 大昌書館, 1913.
李鍾楨, 『增補字典大解』, 미상, 1913.
崔南善, 劉瑾 외, 『新字典』, 京城: 新文館, 1915.
張三植, 『大漢韓辭典』, 박문출판사, 1989.
박재연, 『中朝大辭典』(전9권), 선문대학교출판부, 2002.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古語大辭典』(전7권), 학고방, 200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韓國漢字語辭典』(전4권),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2002.
漢語大辭典編輯處, 『康熙字典』, 上海史書出版社, 2008.
漢語大詞典編輯委员会,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7.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김종훈, 『한국 고유한자 연구』, 보고서, 2014.
류화송, 「『한국한자어사전』에 수록된 한국고유한자의 주석 내용에 대한 오류 검토 연구」, 『어문연구』, 2013.
신상현, 「한국 고유한자 조사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43호, 2004.
하영삼,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 『중국어문학』, 제33집, 1999.
송 민, 「신생 한자어의 성립 배경」, 『새국어생활』, 제9권, 1999.
남광우, 「한국의 고유한자」, 『국어생활』.
박균철, 「한일 한자에 대하여 — 국자를 중심으로」.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漢鮮文新玉篇』, 韓國固有漢字, 國字, 國音字, 國義字		
	영문	Han Xian Wen Xin Yu Pian, Korea's indigenous Chinese character, Gugja, Gugeumja, Guguija		
<div>A study on the special characters of Chinese and Korean in Han Xian Wen Xin Yu Pian</div> <div>Kwak, Hyun-Suk</div> <p>The dictionary of Chinese and Korean in Han Xian Wen Xin Yu Pian had been compiled in the civilized period, which was written by Xuan Gonglian in 1913, when King Gaozong issued the edict in order to create the new characters adapt to that time. The words like Chao, Ri, Hua (i.e., Korea, Japan and China) had been specially remarked after some Chinese annotation, in which 'Chao' means Chinese characters and words in Korea, 'Ri' refers to those generally used by Japanese, 'Hua' points to those widely used in China. This paper does main research on investig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inherent Chinese characters in Korea with remarking of Chao in this dictionary, among of which the inherent Chinese characters only had 55 with very small number, but those inherent Chinese characters in Korea in other literature including to the dictionary of Chinese and Korean in Han Xian Wen Xin Yu Pian lurked the background of our people's way of life, nation's culture of system and the way of thinking, and their using rate is becoming smaller and smaller even some have been ignored or disappeared today. However, the research on the inherent Chinese characters in Korea can still have the high academic culture value, not only revealing the historical process of Chinese characters used in Korea, but also clearing a clue to our history and culture.</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곽현숙 / 郭鉉淑 / Kwak, Hyun-Suk		
	소 속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Em@il	yellow1331@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6년 08월 12일	심 사 일	2016년 09월 19일
	수 정 일	2016년 09월 24일	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29일